

제 2장 삼국시대의 고성-고자국(古自國)

제 1절 고성지역의 고대국명(古代國名)

삼국시대의 고성지역은 가야에 속했으며, 고성지역에 자리잡았던 정치집단의 국명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변진 역시 12국이다. 또한 소별읍이 있다. 각각 거수가 있는데, 큰 자의 이름이 신지이고 그 다음이 힘측, 다음이 변예, 그 다음이 살해, 다음이 읍차이다. 이저국·불사국·변진미리미동국·변진접도국·근기국·난미리미동국·변진고자미동국·변진고순시국·염해국·변진반로국·변락노국·군미국·변군미국·변진미오야마국·여담국·변진감로국·호로국·주선국·마연국·변진구야국·변진주조마국·변진안야국·변진독로국·사노국·우중국이 있다. 변한과 진한을 합하여 24국인데 큰 것은 4천~5천가, 작은 것은 6백~8백가이며, 총 4만~5만호이다.¹⁾

○ 그 뒤 3년에 골포(骨浦)·칠포(柒浦)·고사포(古史浦)의 삼국사람이 갈화성(竭火城)에 와서 침공하므로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구원하니 삼국의 군대가 대패하였다.²⁾

○ 제10대 나해왕(奈解王) 즉위 17년(212) 임진(壬辰)에 보라국(保羅國)·고자국(古自國) [지금의 고성(固城)]·사물국(史勿國) [지금의 사주(泗州)] 등의 8국이 힘을 합하여 변경을 침략하므로 왕이 태자 날음(捺音)과 장군 일벌(一伐) 등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막게 하니 팔국이 모두 항복하였다.³⁾

○ 백제가 사신을 보내어 일본부 임나집사를 불러 말하기를(중략) 일본(日本) 길비신(吉

1) “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 次有邑借 有已祗國·不斯國·弁辰彌離彌凍國·弁辰接塗國·勤耆國·難彌離彌凍國·弁辰古資彌凍國·弁辰古淳是國·冉奚國·弁辰半盧國·弁樂奴國·軍彌國·弁軍彌國·弁辰彌烏邪馬國·如湛國·弁辰甘路國·戶路國·州鮮國·馬延國·弁辰狗邪國·弁辰走漕馬國·弁辰安邪國·弁辰瀆盧國·斯盧國·優中國 弁辰韓合二十四國·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弁辰條)

2) “後三年 骨浦柒浦古史浦三國人 來攻竭火城 王率兵出救 大敗三國之師” (『三國史記』卷第48 列傳 第8 勿稽子傳)

3) “第十奈解王即位十七年壬辰 保羅國古自國[今固城]史勿國[今泗州]等八國 併力來侵邊境 王命太子捺音將軍一伐等 率兵拒之 八國皆降” (『三國遺事』5 避隱 8 勿稽子傳)

備臣), 안라하한기(安羅下旱岐) 대불손(大不孫)·구취유리(久取柔利), 가라상수위(加羅上首位) 고전혜(古殿奚), 졸마군(卒麻君), 사이기군(斯二岐君), 산반해군아(散半奚君兒), 다라 이수위(多羅二首位) 흘건지(訖乾智), 자타한기(子他旱岐), 구차한기(久嗟旱岐)가 거듭하여 백제에 갔다.⁴⁾

○ 23년(562) 봄 정월에 신라가 가야제국을 쳐서 멸망시켰다. [일본(一本)에는 21년에 임나가 멸망하였다 하고 총칭하여 임나라 하며 별도로는 가라국(加羅國)·안라국(安羅國)·사이기국(斯二岐國)·다라국(多羅國)·졸마국(卒麻國)·고차국(古嗟國)·자타국(子他國)·산반하국(散半下國)·걸찬국(乞滄國)·임례국(稔禮國)을 합하여 10국이다.]⁵⁾

○ [가락기의 찬(贊)에서 이르기를, “자줏빛 끈 한 개가 하늘에서 내려와 여섯 개의 등근 알을 내려주었는데, 그 중 다섯 개는 각 읍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그 성에 남았다” 라고 하였으니, 하나는 수로왕이 된 것이고 나머지 다섯은 각기 다섯 가야의 주인이 된 것이다. 금관(金官)이 다섯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본조사략에서 금관까지 함께 세고, 창녕까지 멋대로 기록한 것은 잘못이다. 아라(阿羅)가야[지금의 함안이다], 고녕가야[지금의 함녕], 대가야[지금의 고령이다], 성산가야[지금의 경산이니, 벽진이라고도 한다], 소가야[지금 고성이다] 또 본조사략에 이르기를 “태조 천복 5년(940)경 경자에 오가야의 이름을 고쳤다. 첫째는 금관[김해부가 되었다], 둘째는 고령(古寧)[가리현이 되었다], 셋째는 비화[지금의 창녕인데, 아마도 고령(高靈)의 잘못이 아닌가 한다. 나머지 둘은 아라와 성산[성산은 벽진가이라고도 한다]이다.”⁶⁾

○ 포상팔국(浦上八國)으로 이르는 골포(骨浦)는 지금의 창원(昌原)에 합쳐지며, 칠포(漆浦)는 지금의 칠원(漆原)이며, 고사포(古史浦)라 이르는 것은 고성(固城)을 가리킨다 [본래의 명칭은 고자포(古自浦)이다] 나머지는 알 수 없다.⁷⁾

4) “百濟遣使 召日本府任那執事曰(중략) 日本古備臣 安羅下旱岐大不孫久取柔利 加羅上首位古殿奚 卒麻君 斯二岐君 散半奚君兒 多羅二首位訖乾智 子他旱岐 久嗟旱岐 仍赴百濟”(『日本書紀』 欽明紀 5年(544) 11月條)

5) “廿三年 春正月 新羅打滅任那官家. [一本云 廿一年 任那滅焉 總言任那 別言加羅國安羅國斯二岐國多羅國 卒麻國古嗟國子他國散半下國乞滄國稔禮國 合十國]”(『日本書紀』 欽明紀 23年(562)條)

6) “[駕洛記贊云 垂一紫纓 下六圓卵 五歸各邑 一在茲城 則一爲首露王 餘五各爲五伽耶之主 金官不入五數 當矣 而本朝史略 竝數金官 而濫記昌寧誤] 阿羅[一作耶]伽耶[今咸安]古寧伽耶[今咸寧]大伽耶[今高靈]星山伽耶[今京山 一云碧珍]小伽耶[今固城] 又本朝史略云 太祖天福五年庚子 改五伽耶名 一金官[爲金海府]二古寧[爲加利縣]三非火[今昌寧 恐高靈之訛] 餘二阿羅星山[同前 星山或作碧珍伽耶]”(『三國遺事』 1 紀異2 五伽耶條)

7) “但浦上八國所謂骨浦者 今合于昌原 所謂漆浦者 今之漆原 所謂古史浦者 似指固城[本名古自浦] 餘不可考也”(『疆域考』 卷2, 弁辰別考)

위의 기록에서 보이는 바와같이 문헌으로 나타나는 고성지역의 최초 국명은 변진고자미동국(弁辰古資彌凍國)이다. 3세기 중엽의 중국역사서인 『삼국지』에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고자미동국을 고성지역으로 이해하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고사포(古史浦), 『삼국유사』에는 고자국(古自國), 그리고 소가야(小伽耶)로 기록되고 있다. 『일본서기』에는 구차국(久嗟國)·고차국(古嗟國)으로 나타난다.

나라이름의 어원에 대해서는 고자(古資), 고자(古自), 고차(古次)는 다 갯기(岬崎)를 의미하는 방언인 ‘곶’ 혹은 ‘고지(串)’의 음사(音寫)로서, 이것은 ‘口’의 고어(古語)에서 나온 말이며, 일본어의 ‘くち’에서 나온 말이라는 견해가 있다. ‘미(彌)’는 모(牟)와 같이 수(水)를 의미하는 말이고, ‘동(凍)’은 탁(涿) 혹은 토(吐)와 같이 제(堤)를 의미하는 말이므로 미동(彌凍)도 역시 물둑(水堤)의 뜻이라고 한다. 즉 바다 속에서 돌출한 고성반도에 위치하였으므로 일찍이 古資, 古自라 했다는 것이다. 미동(彌凍)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이 곳에 유명한 제방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다.⁸⁾

다른 의견도 있다. “고성군본고자군(固城郡本古自郡)”에서 ‘古’는 ‘固’와 대응하며, 훈(訓)이 ‘굳-, 구드-’이고, ‘自’는 ‘城’을 뜻하는 ‘sa’의 표기이며, ‘古自’는 ‘kuru-sa(大城)’의 표기라고도 하였다.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고성현의 다른 이름이 ‘철성(鐵城)’이라고 하였으니, ‘古自’는 ‘大城’이라기 보다는 ‘굳은 성’의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⁹⁾

고사포와 고자국이 동일한 정치집단을 이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고자국이 고성지역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다. 『삼국사기』 지리지 강주 고성군조에 “본래 고자군이었는데 경덕왕대에 이름을 고쳤는데 지금도 그대로이다(本古自郡 景德王改名 今因之).”라는 기사에서 알 수 있다. 위의 포상괄국전쟁관련사료에 보이는 바와같이 『삼국사기』 물계자전에는 고사포(古史浦)로, 『삼국유사』에는 고자국(古自國)이 나타난다. 이로 보아 고사포와 고자국은 동일한 지역명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고성지역을 나타내는 옛 지명에는 『삼국지』 위서동이전 한(韓)조에 ‘변진고자미동국(弁辰古資彌凍國)’, 『일본서기』에 구차(久嗟), 고차(古嗟)로 나타난다. 古自, 古史, 古資, 古嗟, 久嗟 등은 유사한 음을 지니고 있음을 보아도 古史浦와 古自國은 동일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고성이라는 지금의 이름은 원래 신라 경덕왕때 고친 것이며, 그 이전은 고자군이였다. 통일신라시기 고성군에 소속된 지역은 문화량현(蚊火良縣 : 고성군 상리면)·사수현(泗水縣 :

8) 이병도, 「삼한문제의 신고찰(6)-진국급삼한고-」 『진단학보』 7, 1937.

이병도,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1976.

9) 이병선, 『한국고대국명지명연구』, 아세아문화사, 1982.

사천시 사천읍)·상선현(尙善縣 : 고성군 영현면)의 셋으로 지금의 고성군 영역보다 넓은데, 고자국의 영역을 신라가 그대로 계승하여 군으로 편제한 것일 수도 있고, 신라정부 임의로 했을 가능성도 있다.

고성에 자리잡았던 가야시기의 나라이름도 다양하다. 문헌으로 나타나는 최초의 국명은 『삼국지』의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이다. 『일본서기』에는 구차국(久嗟國)·고차국(古嗟國)으로, 『삼국사기』에는 고사포(古史浦), 『삼국유사』에는 古自國, 그리고 소가야(小伽耶)로 기록되고 있다. 이로 볼 때 3세기 까지의 국명은 고자미동국이고, 4세기 이후로는 고사포국, 고자국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소가야라는 이름으로 널리 불리어지고 있다. 이것은 고려시대에 쓰여진 『삼국유사』를 근거로 조선시대 이후 널리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지리지 중에서 『고려사』 지리지의 가장 먼저 고자군(古自郡)의 전신을 ‘소가야국(小加耶國)’이라 하였고,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소가야국(小伽耶國)’이라 하였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가야국(加耶國)’ 또는 ‘소가야(小伽耶)’라고 하였다. 그 이후로 거의 모든 지리지나 읍지에 그대로 쓰여졌다. 그러나 소가야는 나말여초 이후 지어진 이름이고, 고성지방의 옛 국명은 고자국, 고사포국이었다. 즉 고성지역의 정치집단 이름은 3세기까지 고자미동국이었고, 4세기이후에는 고자국, 고차, 구차 등으로 불리었다.

그런데 왜 고려의 대가야와 달리 소가야라 했을까? 고성지역을 소가야라고 불렀던 이유를 알 수 없다. 고성지역 사람들이 스스로를 작은 가야라는 ‘소가야’로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자는 소가야는 ‘쇠가야’가 잘못 전해진 것으로 추정한다. 그 근거로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의 경덕왕은 고자군(古自郡)을 고성군(固城郡)으로 바꾸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고성의 지명이 철성(鐵城)이었음을 들고 있다. 고성과 철성은 ‘쇠처럼 단단한 성’이란 의미이다. 따라서 작은 가야가 아니라 ‘철의 가야’였다는 것이다.

고성지역에 철과 관련된 유적이 조사되기도 했다. 1974년 동아대박물관이 발굴한 동외동 패총유적이다. 이곳에서 야철지가 발견되었다. 이 유적에서 국립진주박물관은 1995년에 두 마리의 새가 마주보고 있는 청동장식을 발굴하기도 했다. 야철지는 1~3세기 소가야의 제철이나 야철을 보여주는 것이고, 청동장식은 그 지역을 다스리던 지배자의 존재를 보여준다.

삼국시대의 고성지역을 지칭하는 이름은 다양하다. 지역민들은 소가야라 즐겨 부르고 있다. 하지만 소가야라는 이름은 삼국시대에 쓰여진 이름은 아니었다. 삼국시대의 고성지역에 존재했던 국명은 3세기까지는 고자미동국이고, 4세기 이후에는 고사포국, 고자국이었다. 따라서 소가야라고 부르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역사서에 기록된 고자국이나 고사포국으로 부르는 것이 고성지역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 2절 가야사와 고자국

제 1항. 가야사의 이해

가야사에 대한 연구는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정약용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가야지명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가야가 신라보다 정치적 성장이 빨랐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하여 가야사를 발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하지만 정약용에 의해 비롯된 가야사 연구 시각은 지속되지 못했다. 일본인에 의해 시작된 근대적 학문연구방법으로서의 가야사연구는 가야의 발전과정을 밝히려 했던 정약용의 학문적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을 증명하기 위한 고대의 한일관계사로 변질되었다. 즉,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가야사를 연구했던 것이다.

‘임나일본부설’은 가야지역이 왜의 신공왕후가 369년 정복한 이후부터 대가야가 멸망하는 562년까지 왜 왕권의 통치기관인 ‘임나일본부’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학설이다. 이 학설은 일본 식민사관의 대표적 이론으로서, 일본인과 한국인이 같은 뿌리라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과 함께 식민통치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해방이후 우리 학자들에 의해 가야사연구가 시작되었지만, 가야의 주체적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보다는 일본의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부정에 치우쳤기 때문에 가야의 실체를 이해하기는 부족했다. 1980년대 이후부터 가야사연구 방향은 수정되었다. 가야사를 임나일본부의 극복과 관련된 한·일간의 대외관계 연구에서 벗어나 가야를 주체로 하는 가야사 연구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가야의 역사적 발전과정이 연대기적으로 정리되기에 이르렀고, 고구려·백제·신라와 함께 한국고대사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가야를 주체로 한 가야사연구가 시작된 것은 확대된 고고학자료, 『일본서기』에 대한 재해석에서 비롯되었다. 1970년대 낙동강유역 개발에 따라 가야권역에 속하는 경상남북도 일원의 가야문화권에 대한 광범위한 고고학적 조사가 행해져 가야문화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낙동강 인근에 위치한 고령, 창녕, 함안, 김해 등지에서 조사된 발굴자료는 엄청나다. 대형고분군, 그 속에 함께 묻혀있었던 토기를 비롯한 다양한 고고자료만을 보더라도 동시대의 신라, 백제에 못지않은 선진적인 문화를 가졌던 나라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고령의 지산동고분군, 함안의 말이산고분군, 창녕의 교동·송현동고분군, 함천의 옥전고분군, 고성의 송학동고분군 등의 대형고분군은 고분에 묻혀있던 사람의 정치적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적 규모 또한 방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기록의 신뢰성이 의문시되던 『일본서기』에 대한 재해석으로 가야사 연구의 폭이 확대되었다. 8세기초의 기록으로 일본의 천황제 국가주의사관에 의하여 편찬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거나 윤색되었고, 일본 또는 백제의 입장에서 바라본 가야에 대한 서술이었기 때문에 자료의 활용에 한계가 있어왔다. 하지만 6세기대를 서술하고 있는 계체기와 흠명기에 대해서는 그 사료적 가치가 인정되어 가야사연구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이외의 문헌자료들도 가야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물론 가야는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처럼 스스로를 주체로 서술한 역사서는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기록들을 잘 살펴보면 가야의 발전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가야본기가 없지만, 가야에 대한 서술이 신라본기를 비롯한 지리지, 악지, 열전 등의 여러 곳에 분산되어 서술되고 있다. 다만, 내용이 단편적이며, 가야사회의 내부사정을 전하는 것은 드물고 대부분 신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한계이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와 오가야조의 가야관련 기록은 『삼국사기』와 달리 기록이 양적으로 풍부하고, 가야사회의 내부사정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는 역사서이다. 하지만 주로 설화의 형태로 서술되었으므로 한계가 없지는 않다.

중국의 역사서에도 가야에 대한 기록이 전하고 있다. 『삼국지(三國志)』, 『송서(宋書)』, 『남제서(南齊書)』, 『한원(翰苑)』, 『통전(通典)』 등이다. 이들 역사서들이 가야를 직접적인 서술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대체로 낙랑이나 백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가야의 모습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남제서』 열전 동남이전의 기록에 보이는 가락국왕 하지(荷知)의 479년 남제와 통교기사는 소략하지만 가야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소략한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록들이 가야사의 전개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기록들을 한 겹 씩 벗겨내면 가야의 실제적인 모습을 확인하는데 한걸음 다가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또한 단편적인 것이지만 「광개토왕비문」과 같은 금석문, 토기에 새겨진 명문도 가야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가야사회의 발전과정이 연대기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었다. 이제 가야사는 ‘신화속의 역사’가 아니라 한국의 고대 삼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실재했던 역사로 자리매김 되었다. 김해의 가락국,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했던 가야사 연구에서 함안의 아라가야, 고성 of 소가야[고자국]를 포함한 가야 각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여 가야사의 폭도 확대되었다. 때문에 삼국 중심의 한국고대사에서 가야사는 주변부가 아니라 한국고대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삼국과 더불어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치집단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커다란 도움이 되기도 했다. 가야

의 역사가 숨 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관광자원을 확보하고자 했기 때문에 가야사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향토사학자들에 의해 간혹 언급되었던 ‘사국시대론(四國時代論)’이 전문 연구자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즉 한국의 고대사회를 삼국 중심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가야를 포함한 사국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야사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된 결과임에 틀림없다.

현재까지의 가야사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로, 가야가 점유한 영역은 경상남·북도의 낙동강유역과 그 서쪽일대를 포함할 뿐만아니라, 최대 판도를 이루었을 때는 전라남·북도의 동부지역을 포괄하는 매우 넓은 땅이었다. 이것은 고구려의 영역과 비교될 수는 없지만, 백제나 신라에 비해 손색이 없다. 둘째로, 가야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원인이 중첩되어 끝내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완성하지 못하고 멸망하였지만, 개별 소국들의 생산력이나 기술수준이 대단히 높아 이를 바탕으로 하여 600년 넘게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대외적으로 독자적인 역사를 지속하고 있었다. 가야가 장기간에 걸쳐 왜 또는 백제에게 지배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었다. 셋째로 일본고대문화의 성립은 가야의 문화 수준 및 가야사의 전개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가야 멸망 후에 가야의 유민들이 문(文)과 무(武)의 양 측면에서 큰 공헌을 하였다는 것이다.

제 2항. 가야의 명칭

가야는 가야 주체의 역사서를 가지지 못했던 탓인지 역사서에 다양한 표기로 등장하고 있다. 나라의 이름을 두고 가야만큼 다양하게 불리어진 경우도 드물다. 한자표기 뿐만 아니라 옛날 기록에 나타나는 이름도 가지각색이다. 가야 각국을 가리키는 이름이 있었고, 가야 전체를 표현하는 이름도 있다.

금석문이나 역사서를 통해서 볼 때 가야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은 가야와 가라, 임나였다. 가야는 ‘加耶’, ‘伽耶’, ‘伽倻’로 표기되었으며, 가라는 ‘加羅’, 임나는 ‘任那’이다.

加耶는 ‘가라’에서 변화되었다고 국어학자들은 말한다. 加耶는 『삼국사기』에 주로 등장하는 가야의 명칭에 대한 일반적인 용례이다. 『삼국사기』의 편찬자는 가야는 신라에 복속되었기 때문에 가야의 여러 나라들을 하나로 통일하여 가야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伽耶라는 표현은 『삼국유사』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명칭은 인도 불교 성지인 ‘부다가야(Budda Gaya)’를 ‘佛陀伽耶’로 표기하고, 그 북방에 있는 도시 ‘가야(Gaya)’를 ‘伽

耶城’으로 표기한 불경의 용례로 보아, 불교가 성행하던 고려시대에 일부의 승려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가야를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의도적으로 고쳤을 가능성이 있다. 『삼국유사』를 쓴 사람은 승려 일연이었기 때문이다.

伽耶는 조선시대 지리지와 읍지 등에서 주로 쓰여 졌다. 조선시대 기록은 『삼국유사』를 주로 인용하였는데, 『삼국유사』에서 쓰이고 있는 ‘伽耶’를 쓰지 않고 ‘伽耶’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불교에 배타적이었던 유학자들이 불교의 어감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加羅는 우리의 옛말에서 산들 등을 뜻하는 말인데, 산기슭이나 들판의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加羅는 「광개토왕비문」에 임나가라(任那加羅)라는 명칭으로 처음 기록된 후 일본의 고대 역사서적인 『일본서기』에 주로 나타나며, 중국의 사서인 『남제서』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에도 등장한다. 하지만 가라 용례의 대부분은 『일본서기』에서 나타나며 거의 대부분 고령의 대가야를 가리키고 있어 가야지역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任那는 우리 기록에도 3차례 나타나고 있다. 「광개토왕비문」, 「진경대사탑비문」, 『삼국사기』 강수전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일본서기』에 집중적으로 쓰여 지고 있다. 임나는 ‘임의 나라’라는 뜻으로 ‘임’ 또는 ‘님’의 소리를 표기한 ‘任’에 나라를 뜻하는 ‘那’가 결합해 생긴 말로 추정되기도 한다. 『일본서기』에서의 임나는 가야의 여러 나라 전체를 가리키거나, 김해의 가락국, 함안의 아라가야, 고령의 대가야 등과 같이 가야의 한 나라를 지칭하기도 한다. 이것은 당시의 가야 각국들이 신라나 백제와 구분되는 하나의 세력권을 이루고 있었던 사실의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임나는 가야가 존속하고 있었던 당시의 명칭일 수는 있지만, 가야인 스스로 임나라고 불렀을 가능성은 적다. 따라서 주체적인 가야사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이름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반면에 伽耶는 한국 고대사의 대표적 역사서인 『삼국사기』에 일반적으로 쓰인 명칭이며, 가야가 멸망한 이후 가야 전역에 대하여 표기한 신라의 공식 표기였다. 또한 가야는 『삼국지』의 ‘구야’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가장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고, 『삼국사기』와 같은 우리 문헌 속에 나오는 주체적인 명칭이기도 하다. 그리고 가야의 한 나라만을 지칭한 것은 아니므로 가야(伽耶)라 쓰고 부르는 것이 옳다. 다만 가야가 존재했던 시기의 명칭은 가라(加羅)였을 가능성이 높다. 당대의 기록인 「광개토왕비문」에 나타나고 있고, 또한 김해의 가락국은 ‘가라의 국’을 뜻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가야가 존재했던 지역에서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금관가야(김해), 소가야(고성), 아라가야(함안), 비화가야(창녕), 대가야(고령) 등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가야시기에 쓰여졌던 명칭은 아니며, 신라말 고려초에 만들어진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역민이 사용한 용어이므로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제 3항. 가야 권역과 가야제국(加耶諸國)

한국의 역사에서 고대를 ‘삼국시대’ 라고 부르고 있다. 삼국시대라고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3국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삼국시대 전기에는 한반도의 북쪽과 중국의 만주지역에는 고구려, 부여, 옥저, 동예와 같은 나라가 있었고, 한강을 둘러싼 그 이남 지역에는 삼한이 있었다. 삼한은 마한과 진한, 변한인데, 마한은 백제로, 진한은 신라로, 변한은 가야로 발전했다. 변한은 가야의 전기에 해당하고,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의 기록에 의하면 12개의 나라가 있었다. 4세기대 이후인 후기 가야에는 13개의 나라가 있었다. 이들 나라 외에도 가야지역에는 다양한 이름의 나라가 등장하고 있다.

가야는 가야 주체의 역사서를 가지지 못한 탓인지 나라들에 대한 표기도 문헌에 따라 너무 다르다. 가야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지』, 『일본서기』 등이다. 여기에는 가야에 속하는 다양한 나라들이 기록되고 있다. 가야의 권역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야에 속했던 나라들이 있었던 지역을 통하여 가야의 권역을 설정해 볼 수도 있다.

『삼국유사』에서 가야의 권역을 개략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다.

○ 동쪽으로는 황산강, 서남쪽으로는 넓은 바다, 서북쪽으로는 지리산, 동북쪽으로는 가야산, 남쪽은 나라의 끝이 된다.(『삼국유사』 권제2 기이(紀異) 제2 가락국기(駕洛國記))

○[가락기의 찬(贊)에서 이르기를, “자줏빛 끈 한 개가 하늘에서 내려와 여섯 개의 등근 알을 내려주었는데, 그 중 다섯 개는 각 읍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그 성에 남았다” 라고 하였으니, 하나는 수로왕이 된 것이고 나머지 다섯은 각기 다섯 가야의 주인이 된 것이다. 금관(金官)이 다섯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본조사략에서 금관까지 함께 세고, 창녕까지 멋대로 기록한 것은 잘못이다]. 아라(阿羅)가야[지금의 함안이다], 고녕가야[지금의 함녕], 대가야[지금의 고령이다], 성산가야[지금의 경산이니, 벽진이라고도 한다], 소가야[지금 고성이다] 또 본조사략에 이르기를 “태조 천복 5년(940)경 경자에 오가야의 이름을 고쳤다. 첫째는 금관[김해부가 되었다], 둘째는 고녕(古寧)[가리현이 되었다], 셋째는 비화[지금의 창녕인데, 아마도 고령(高靈)의 잘못이 아닌가 한다. 나머지 둘은 아라와 성산

[성산은 벽진가야라고도 한다]이다.” (『삼국유사』 권제1 기이 제2 오가야(五伽耶)

황산강은 낙동강을 말한다. 가락국기의 내용과 오가야조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비화(非火)는 낙동강 동쪽에 있으며, 성산(星山)은 가야산의 북쪽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오가야조를 근거로 가야 영역을 설정하기도 하지만, 오가야조의 기록은 가야 당대의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오가야조를 근거로 가야의 영역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가야에 속하는 정치집단의 지명비정을 통해 가야의 영역 혹은 문화권을 추정할 수도 있다. 변한 12국, 『일본서기』의 13국, 우륵 12곡 등이 그것이다.

○ 변진(弁辰) 역시 12국이다.(중략) 이저국·불사국·변진미리미동국·변진점도국·근기국·난미리미동국·변진고자미동국·변진고순시국·염해국·변진반로국·변락노국·군미국·변군미국·변진미오사마국·여담국·변진감로국·호로국·주선국·마연국·변진구야국·변진주조마국·변진안야국·변진독로국·사노국·우중국이 있다. 변한과 진한을 합하여 24국인데 큰 것은 4천~5천가, 작은 것은 6백~8백가 이며, 총 4만~5만호이다. (『삼국지』 권 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전 제30 변진조)

○ 23년(562) 정월에 신라가 가야제국을 쳐서 멸망시켰다. [일본(一本)에는 21년에 임나가 멸망하였다 하고 충칭하여 임나라 하며 별도로는 가라국(加羅國)·안라국(安羅國)·사이기국(斯二岐國)·다라국(多羅國)·졸마국(卒麻國)·고차국(古嗟國)·자타국(子他國)·산반하국(散半下國)·걸찬국(乞滄國)·임례국(稔禮國)을 합하여 10국이다.](『일본서기』 흠명기 23년(562)조)

○ 가야금 역시 중국 악부의 쟁을 모범으로 하여 만들었다…(新)羅古記에 말하기를 가야국의 가실왕이 중국의 악기를 보고 만들었다. 왕이 여러 나라의 방언에 성음의 차이가 있어 하나로 통일하고자 악사인 성열현 사람 우륵에게 명하여 12곡을 만들게 하였다. 뒷날 나라가 어지럽게 되자 우륵은 악기를 가지고 신라 진흥왕에게 투항했다. 진흥왕은 그를 받아들여 국원(지금의 충주)에 안치했다.(중략)우륵이 지은 12곡은 1.하가라도(下加羅都) 2.상가라도(上加羅都) 3.보기(寶伎) 4.달이(達已) 5.사물(思勿) 6.물혜(勿慧) 7.하기물(下奇物) 8.사자기(師子伎) 9.거열(居烈) 10.사팔혜(沙八兮) 11.이사(爾赦) 12.상기물(上奇物)이다. (『삼국사기』 권32 잡지(雜志)1 악(樂) 가야금(伽倻琴)

○ 신라와 안라 양국의 접경에 대강수(大江水)가 있어 요해의 땅이라고 한다.(『일본서기』 흠명기 5년(544) 11월조)

변한시기에는 변한 12국 이외에도 가야에 속했던 나라들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타나고 있다. 포상팔국(浦上八國)인데, 그중에서 골포(骨浦), 칠포(柒浦), 고사포(古史浦), 사물국(史勿國), 보라국(保羅國)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이 위치했던 지역도 가야사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후기가야에는 13국이 있었다. 가야 멸망 당시를 보여주는 위의 기록에 10국 밖에 없는 것은 이미 남가라, 탁기탄, 탁순이 신라에 멸망했기 때문이다. 이외에 가야의 국명을 보여주는 것이 우륵 12곡의 곡명이다. 기악명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역명 혹은 국명을 가리키고 있다. 이들 국명의 위치비정을 통해서 가야후기의 가야영역에 대한 대강을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위치비정이 쉽지 않다. 연구자들끼리 견해가 많이 다르다. 따라서 연구자들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하는 국명을 중심으로 가야 영역의 대강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라와 아라가야[안라]의 국경인 대강수(大江水)는 낙동강이므로 낙동강을 경계로 하여 가야영역의 대강을 엿볼 수 있다.

【표1】 변진12국에 대한 위치비정

국명	연구자	이병도	천관우	김태식
변진미리미동국		밀양	예천군 용궁	밀양군 밀양읍
변진접도국		함안군 칠원		
변진고자미동국		고성	고성	고성군 고성읍
변진고순시국			사천-삼천포	
변진반로국		성주		
변진낙노국		하동군 악양		
변진미오야마국		고령	고령	
변진감로국		김천군 개녕	금릉군 개녕	
변진구야국		김해	김해	김해
변진주조마국		김해군 조마	함안군 칠원-마산	
변진안야국		함안	함안	함안군 가야읍
변진독로국		동래	동래	부산시 동래구

【표2】 후기가야 13국에 대한 지명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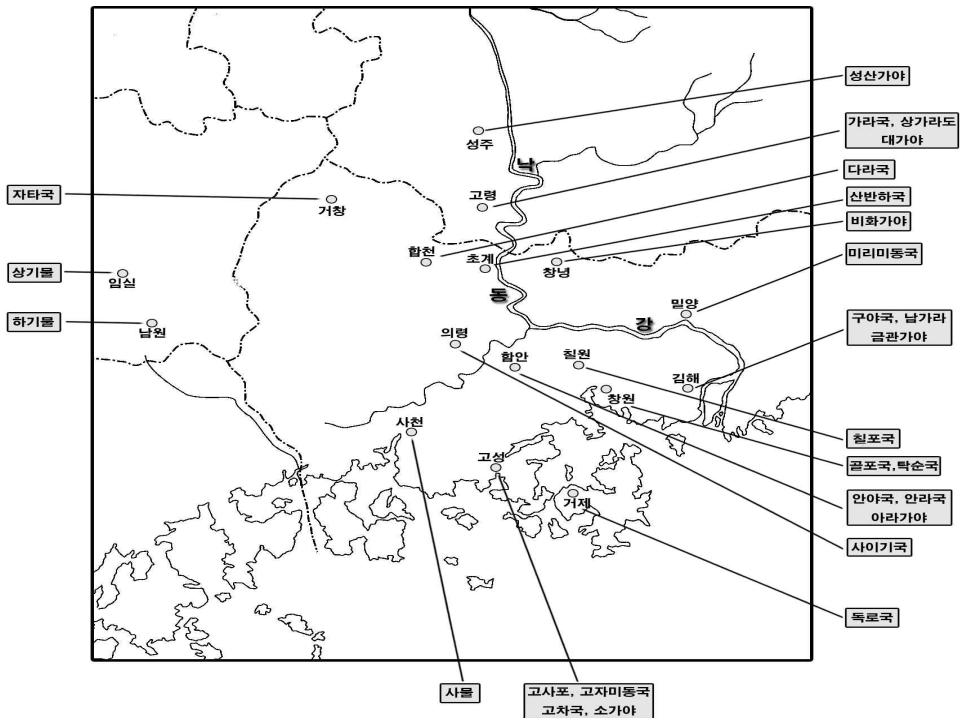
연구자 국명	말송보화	이병도	천관우	김태식
가라국	고령		고령	고령군고령읍
안라국	함안	함안	함안	함안군 가야읍
사이기국	의령부림신반리	삼가		의령군 부림면
다라국	합천	합천	합천	합천군 합천읍
줄마국	김해 마사리 술마	김천	합천	
고차국	고성	고성	고성	고성군 고성읍
자타국	거창진주			거창군 거창읍
산반하국	초계	의령		합천군 초계면
결찬국	창원·굴촌현·단계			산청군 단성면
임례국	거창 위천			
탁순국	대구		대구	창원시
탁기탄국	경산		경산	창녕군 영산면
남가라국	김해		김해	김해시

【표3】 우륵 12곡의 기악명 및 지명비정표

번호	연구자 곡명	이병도	末松保和	양주동	田中俊明	김태식
1	하가라도	대가야(고령)		아라가야(함안)	다라(합천군 쌍책면)	남가야(김해시)
2	상가라도	본가야(김해)		대가야(고령)	대가야(고령군고령읍)	대가야(고령읍)
3	보기				포춘(주천읍 곤양면)	
4	달기	달기(예천)	달기현, 달구화	달기현(예천)	달기(대사)하동군 하동읍	
5	사물	사물(사천)	사물(사천)	사물현(사천)	사물(사천읍)	사물현(사천읍)
6	물혜		물아혜(무안)	마리현(함양)	문화량(고성군 상리면)	
7	하기물			금물현(김천)	하기문(남원시)	하기문(남원시)
8	사자기				삼지(합천군 대병면)	
9	거열	고령가야(진주)	거창, 진주	거열군(거창)	거열(거창읍)	거열군(거창읍)
10	사팔혜		초팔혜(초계)	초팔혜(초계)	초팔혜(산반해)초계면	초팔혜(초계면)
11	이사				사이기(의령군 부림읍)	
12	상기물				상기문(임실읍)	상기문(임실읍)



[그림1] 5세기 후반 가야의 영역(김태식,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한국 고대 사국 고구려·백제·신라·가야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39·40쪽)



[그림2] 가야 각국의 위치

제 4항. 가야의 형성과 멸망

가야의 역사는 2천여 년 전 남쪽의 해안지역인 김해지역일대에서 시작되고, 6세기 중엽에 경상도 내륙지역인 고령일대에서 끝났다.

가야는 전기가야와 후기가야로 나눌 수 있다. 광개토왕이 가야지역으로 진출하는 400년을 기준으로 전·후기로 나뉜다. 전기가야는 김해의 구야국[가락국]과 함안의 안야국이 후기가야는 고령의 대가야와 함안의 아라가야가 큰 세력으로 활약하였다.

전기가야는 중국의 역사서인 『삼국지』에 등장하는 변한 12국이 존재했던 시기였다. 『삼국지』에 구야국이 나타나는데 구야국은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등장하는 가락국이다. 가락국의 건국을 가야사의 시작으로 본다면 변한의 구야국 또한 가야의 역사이므로 변한시기의 12국은 가야사에 포함되는 것이다. 『삼국유사』에 의한다면 가락국의 시작은 기원후 42년이였다.

따라서 약 2천년 전부터 가야는 남해안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정치집단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바닷길을 통해 중국 한(漢)의 선진문물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서북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었던 낙랑 등과 교섭했던 것이다. 평안도, 황해도에서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고, 남해로 접어들어 동쪽으로 항해하다가 김해의 구야국에 이르렀던 것이다. 남해에 인접한 가야의 나라들은 이러한 항로를 통해 선진문물을 수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해의 회천리 패총, 김해의 대성동·양동고분군, 창원외의 다호리유적, 고성의 동외동패총 등에서 중국의 청동제술, 청동거울, 중국화폐인 화천, 오수전 등이 출토되었다.

김해의 구야국과 안야국이 중심이 되었던 전기가야는 4세기대 낙랑군과 대방군이 한반도에서 축출됨으로써 교역을 통하여 중국 한나라의 선진문물을 수입하면서 성장하던 전기가야의 여러 나라들이 타격을 입게 되었다.

전기가야가 쇠퇴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400년 고구려 광개토왕의 가야 공략이었다. 광개토왕은 왜의 침략을 받던 신라의 구원요청을 받아들여 5만 명의 보병과 기병을 파견해 왜군과 가야를 공격하였다. 이 때문에 김해의 가락국은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아 쇠퇴하게 되었다.

후기가야는 고령의 대가야와 함안의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하지만 대가야도, 아라가야도 신라나 백제처럼 가야지역 전체를 통합하지 못했다. 하지만 함안의 아라가야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왜를 이용하여 백제와 신라의 가야지역 침략을 막아내고 가야지역의 독립성을 보존할 수 있는 외교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따라서 후기가야는 고령의 대가야와 함안의 아라가야가 중심이 되었으며, 고성의 고차국, 함천의 다라국 등이 존재하던 시기이다.

5세기 중엽부터 6세기전반까지 가야제국은 동쪽의 신라와 서쪽 백제의 공격 대상이었다.

아라가야를 비롯한 가야의 여러 나라들은 신라와 백제에 대항해 자국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쟁과 외교정책을 번갈아 구사하였다. 즉 친백제노선, 친신라노선 정책을 적절하게 반복하였다. 그리고 왜를 끌어들이어 외교활동에 이용하기도 하였다.

부산 동래지역을 병합하여 가야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신라는 낙동강을 건너 김해의 가락국 등을 멸망시키면서 서진하였다. 이에 함안의 아라가야는 신라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가야 여러 나라의 왕과 사절을 함안에 불러 모아 협의하기도 하고, 백제의 사비성에서 성왕과 외교교섭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백제도 섬진강 수계에 본격진출하기 시작하여 섬진강을 따라서 하동지역까지 진출하였다. 백제 또한 가야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라가야와 대가야는 가야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했지만, 신라의 가야 공략을 이겨낼 수 없었다. 함안의 아라가야는 560년경, 고령의 대가야는 562년에 망하고 말았다. 고성의 소가야도 아라가야 멸망과 함께 신라에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가야는 한국고대사회에서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제 3절 고자국의 형성과 발전

제 1항. 고자국의 형성

고성지역은 경남 남부해안에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 창원시(마산합포구)와 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사천시, 북쪽으로는 함안군, 남쪽은 바다와 접해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해안을 통하여 주변세력들과 쉽게 교류할 수 있고, 교역망 확보에도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다. 특히 고성의 중심지인 지금의 고성읍은 바다와의 거리가 가깝고, 비교적 넓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지는 고대로부터 정치집단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따라서 고성지역에는 청동기시대 유적을 비롯하여 가야시기의 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다.

가야형성 이전 시기인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인 지석묘가 고성군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고성읍 수남동·기월리, 마암면 석마리·신리, 구만면 광덕리·효락리, 개천면 예성리, 회화면 석마리·신리·봉동리, 대가면 금산리·유흥리·암전리, 영현면 신분리, 상리면 신촌리·도산리, 하일면 오방리·학림리, 하이면 석지리·봉현리·월흥리, 거류면 거산리·가려리, 동해면 내산리·양촌리 등이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자료로 볼 때 청동기시대 고성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은 고성읍에서 15km 거리에 있는 하이면 석지리지석묘 축조 집단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수로왕릉(首露王陵)이라 전하는 곳이 이곳에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석관묘 또는 지석묘의 하부구조가 개간작업 중 논 가운데서 발견되어 잘못

전해져 온 것으로 추정된다.

지석묘 유적이 입지하고 있는 위치로 보아 청동기시대의 고성지역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석묘군들은 남강지류인 영오천 유역의 논둑(개천면 예성리), 배둔만으로 흘러드는 마암천 중류 산곡평야에 위치한 농경지(회화면 석마리), 고성평야를 거쳐 배둔만으로 흘러드는 울천 상류 암전천 유역의 협소한 산간계곡(대가면 금산리), 삼천포만으로 유입되는 봉현천 중상류지역의 비교적 발달된 충적평야(하이면 석지리), 남해로 유입되는 작은 하천인 오방천의 중상류에 위치한 좁은 산곡평야지대(하일면 오방리) 등이기 때문이다.

청동기시대를 뒤이어 한반도 서북지역에 있었던 고조선 세형동검 문화가 고성지역에 파급되고 있었다. 고성군 하이면 석지리에서 동검(銅劍)이 출토되고, 하일면 송천리 솔섬 석관묘에서 와질의 주머니호와 세형동검을 모방한 철검(鐵劍)이 출토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청동기시대 이후 정치집단의 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 고성동외동패총이다. 동외동패총의 하층에서 한식경(漢式鏡), 철도자(鐵刀子), 검과두(劍把頭), 중광동모(中廣銅鏃) 등이 출토되었고, 토기유물로는 적갈색연질의 원저단경호(圓低短頸壺), 단각고배(短脚高杯), 시루, 회색와질의 타날문원저단경호(打捺文圓低短頸壺), 발형기대(鉢形器臺), 화로형 토기(火爐形土器) 등이 출토되었다. 조성연대는 늑도유적의 존속시기와 병행하는 기원전 2세기초부터 기원후 4세기경까지이다. 특히 동외동패총에서는 야철지(冶鐵址)와 철재(鐵滓), 토관(土管) 등의 유물이 출토된 것으로 볼 때 철을 제련하고 철기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월한 문화를 지닌 고성지역의 세력집단이 변진고자미동국과 같은 정치집단을 형성했던 것이다. 이 시기 이후에도 정치집단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유적들이 많다. 4-5세기대의 동외동 제사유적, 5세기대 이후에 해당하는 송학동고분군, 울대리고분군, 연당리고분군, 내산리고분군 등이 그것이다.

[표4] 고성지역의 고대 유적현황

행정단위	원삼국시대		삼국시대		비고
	패총	분묘	고분	기타	
회화면					
구만면					
개천면					
마암면	1		3		
대가면			3		
동해면			3		
거류면			1		

고성읍	2		6		
영오면			6		
영현면			2		
상리면			1		
하이면			3		
하일면		1	3		
삼산면					
계	3	1	31		

(창원문화재연구소·경남대학교박물관, 『소가야문화권유적정밀지표조사보고-선사·고대』, 1994, 3쪽)

고성지역에 자리잡았던 최초의 정치집단이었던 고자미동국(古資彌凍國)의 형성시기는 잘 알 수 없다. 형성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삼국지』의 기록으로 볼 때, 편찬시기가 3세기 중엽이었으므로 이 시기 이전에 고자미동국이 실재했음을 알 수 있다.

고자미동국의 형성시기에 대해서는 삼한의 형성과정, 변한의 형성과정 등을 통해 유추해 볼 수 밖에 없다. 변한의 형성시기는 삼한의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고찰되어야 한다. 물론 『삼국지』에 나타나는 삼한(三韓) 78국이 동시에 형성·발전했다고는 볼 수 없다. 마한지역 보다는 진한·변한 지역의 정치적 성장이 늦었을 것이다. 삼한단계 이전의 정치집단인 진국(辰國)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고, 청동기 유물과 유적은 경기충청전라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삼한 제국(諸國)의 형성은 북쪽으로부터 남하한 유이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원전 2세기 초부터 유이민의 이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원전 194년 위만세력에게 정권을 빼앗긴 고조선 준왕의 남하, 기원전 108년 한나라에 의한 고조선의 멸망 등이 삼한의 형성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즉 삼한의 형성은 선진문화를 가진 집단이 도래하여 토착세력들과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있다.

○ 후(侯) 준(準)이 참람되어 왕을 일컫다가 연(燕)에서 망명한 위만(衛滿)의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겨 좌우(左右)의 궁인(宮人)을 거느리고 바다를 통해 가서 한(韓)의 땅에 거주하며 스스로 한왕(韓王)이라 하였다.(『삼국지』 권30 위서(魏書) 30 오환선비동이전(烏丸鮮卑東夷傳) 제30 한(韓)(위의 책))

○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었는데 늙은이[耆老]들이 대대로 전하는 말에 옛날에 망인(亡人)들은 진(秦)의 역(役)을 피하여 한국(韓國)으로 왔는데 마한이 동쪽 경계의 땅을 분할하여 주었다고 하였다.(위의 책)

위의 기록들은 기원전 3~2세기경 북방으로부터의 이주민의 유입을 보여주지만, 위만조선의 몰락으로 인한 유이민의 발생이 삼한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조선왕(朝鮮王) 준(準)이 효혜고후시(孝惠高后時 ; 기원전 194~180)에 남하하여 한왕(韓王)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를 마한의 형성시기로 설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최소한 기원전 2세기에는 한(韓)이라는 실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원전 2세기에 삼한이 동시에 형성되지는 않았다. 한족사회가 삼한으로 분리되는 시점을 진정한 의미의 삼한사회의 출발점이라고 할 때, 그 결정적 계기는 위만조선계 집단의 남하로 추정된다.

마한과 구별되는 변·진한의 형성은 위만조선계 집단의 남하에서 비롯되었다. 기원전 108년 위만조선(衛滿朝鮮)이 몰락함으로써 그 세력이 남하(南下)하였던 것이다. 삼한의 토기가 모두 와질토기(瓦質土器)라는 광의의 범주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마한과 대비되는 진·변한지역이 가지고 있는 강한 공통성, 창원 다호리 1호묘 출토의 칠기(漆器) 및 붓의 존재, 진·변한지역에서 자주 확인되는 서북한(西北韓)지역의 문화요소 등은 진·변한이 위만조선과 연결된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변한제국(弁韓諸國)이 출현하는 시기는 기원전 1세기대로 보는 것이 옳다.

구야국(狗邪國; 駕洛國)의 형성시기를 통해서 변한의 형성시기를 추정할 수도 있다. 변한이 전기가야에 해당하며, 구야국은 변한제국 중에서 유력한 정치집단이었으므로 구야국의 형성이 변한사회의 형성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야국의 형성시기에 대해서는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2세기 후반까지 다양하다. 『사기(史記)』 조선전(朝鮮傳)의 ‘진국(辰國)’ 당시에 이미 가락국(駕洛國)이 형성되었다는 입장에서 기원전 108년 이전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삼국지』 한전의 염사치설화(廉斯鑑說話)를 근거로하여 기원전후로 보기도 하며, 가야국의 시초를 『삼국유사』 소재 가락국기(駕洛國記)의 서기 42년을 상한으로 삼고, 『삼국지』 한전의 경초년간(景初年間 ; 237~239)에서 조금 올라가는 2세기 후반을 하한으로 설정하면서 목관묘와 목곽묘의 교체시기인 2세기 전반을 가락국의 개국기년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한군현(漢郡縣)과의 빈번한 접촉을 통한 철자원의 개발과 칠기제작기술의 보급, 대외교역의 전개 등이 기원전후 내지 1세기 초엽이었으므로 이 시기에 구야국이 형성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창원의 다호리(茶戶里)유적에서 발견된 기원전 1세기부터의 성운경(星雲鏡)이나 오수전(五銖錢)같은 다양한 유물은 이 지역에 유력한 정치집단이 있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한군현과의 교역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김해지역도 남해안을 통하여 한군현과 교류했을 것으로 다호리 지역보다 정치집단의 형성이 늦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가락국의 형성시기는 늦어도 1세기 전반을 넘지 않을 것이다. 가락국기에서 가락국 개국을 42년이라 한 것도 참

고된다.

변한의 형성, 가락국[구아국]의 형성시기, 창원다호리유적의 편년으로 볼 때 고성지역에 위치했던 고자미동국도 위만조선세력의 남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기원전 1세기의 유적으로 보이는 창원 다호리유적에서 한나라의 전진기지였던 낙랑과의 교류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고성지역도 창원지역과 멀리 않은 거리에 있으며, 바닷가에 있으므로 중국과의 교류 뿐만아니라 위만조선세력들의 남하로 인하여 정치집단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동외동패총이 고자미동국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유적일 가능성이 높다. 동외동패총은 1~3세기의 유적으로 편년되고 있으며, 한경(漢鏡)의 출토 또한 한군현과의 교류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고자미동국이 형성된 시기도 가락국의 형성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1세기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2항. 고자국의 성장기반

고자국이 위치했던 고성지역은 해안으로 이어진 지역이며, 내륙으로는 산간지대와 구릉지대가 조성되어 있다. 이로부터 바다를 무대로 한 어로와 채취가 기본 생업이었을 것이며, 해로를 통한 교역도 활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내륙 산간지대와 구릉지에서는 농경이 행해졌을 것이다. 따라서 고자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조건은 농업생산력, 해상교역, 철자원 등이었을 것이다.

변한은 “토지는 비옥하여 오곡과 벼를 심기에 적합하다”¹⁰⁾라는 것으로 보아 농업을 중요한 생산기반으로 하는 사회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고성지역의 경우 고자국문화권에 속하는 기원전 2~1세기로 추정되는 늪도유적에서 도작(稻作)이 행해지고 있었다. 농업과 관련된 유물이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업의 발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울대리고분군에서 쇠낫[鐵鎌]이 출토되었으며, 연당리고분군에서는 쇠낫, 쇠도끼[鐵斧],살포 등의 농공구류가 조사되었던 것이다.

고성지역, 그리고 고자국문화권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해상을 통한 교역이 고자국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역품 중에서는 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을 것이다.

○ (韓의) 풍속은 의책(衣幘)입기를 좋아하여 하호(下戶)들도 군(郡)에 가서 조알(朝謁)할 적에는 모두 의책을 빌려 입으며, (대방군에서 준) 인수(印綬)를 차고 의책을 착용하는

10) “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三國志』 卷 30, 魏書 30 烏丸鮮卑東夷傳 弁辰條)

사람이 천 여 명이나 된다(『삼국지』 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전 한전)

○ 나라에서는 철(鐵)이 생산되는 데, 한(韓)·예(濊)·왜인(倭人) 등이 모두 와서 사 간다.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는 철로 이루어져 마치 중국(中國)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으며, 또(낙랑과 대방) 두 군(郡)에도 공급하였다.(위의책)

위의 기록들은 삼한사회의 대외관계를 보여준다. 고성지역에 있었던 고자미동국도 왜(倭) 또는 중국 군현(郡縣)과 접촉하는 데 지리적으로 유리한 입지였다. 중국의 선진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치집단의 발전을 가져왔을 것이다. 대방군에서 준 인수를 차고 의책을 착용하는 사람이 천 여 명이나 된다는 것으로 보아 고자미동국의 지배층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변한 시기 경남해안일대의 정치집단들은 그 자체가 Gateway Community(관문사회(關門社會))로 기능했고, 화천(貨泉), 오수전(五銖錢)과 같은 중국 화폐가 전남 해남지역, 거문도를 비롯해 경남 김해, 창원, 제주도 등 남해안 일대에 두루 발견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고자국 지역에서 철생산을 보여주는 유적이 동외동패총인데, 이 유적에서 고대의 야철지(冶鐵址)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여러 줄의 중형선이 있는 시문용각판(施文用刻板)으로 눌러서 찍은[압날(押捺) 문양이 토기의 전면에 찍혀져 있는 토기편이 발굴되었는데, 보고자는 화남(華南)지방의 초기철기시대 ‘인문도편(印文陶片)’라 추정하여 중국 화남지방과의 교류로 이해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한경과편(漢鏡破片)도 출토되었는데, 중국 아니면 낙랑과의 교류의 증거로 볼 수 있다. 광봉동모(廣鋒銅鋒)와 유사(類似)야요이식토기는 고성지역과 왜지역의 교류관계로 추정할 수 있다. 광봉동모의 경우 세형동검이 일본으로 전파되어 그것이 의례용구로 사용되면서 그 형태가 대형화되고 다양해지면서 완전한 의기(儀器)로 발전한 것이라 한다.

동외동패총에서 조사된 유적과 유물로 볼 때 삼한시기의 고자미동국은 중국 혹은 낙랑군과 통교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왜와도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고성지역이 외래문화가 가야지역으로 이어지는 대외적인 관문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철이 중요한 교역품의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교역을 통해 고자미동국이 정치적으로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성지역 정치집단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요인으로서 교역이 그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포상팔국의 실체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고사포 혹은 고자국은 고성지역에 있었던 정치집단이었고 이것이 포상팔국(浦上八國)을 불린 것에서 알 수 있다.

4세기 이후 고자국의 대외교류는 중국 군현의 축출 등으로 인해 변화하게 된다. 왜와의 교류는 계속되었을 것이나, 중국과의 접촉은 김해의 가락국이 아닌 영산강세력과의 관계 속

에서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4세기 후반인 근초고왕대부터 백제와 가야가 교역을 시작하였다. 백제와 탁순국(卓淳國)의 교류가 그것이다. 『일본서기』 신공기 46년조에 의하면 탁순이 왜국과 백제와의 관계를 중개하고 있고 백제가 탁순을 통해 왜국과 교섭하려 한 기록이 있다.¹¹⁾ 탁순국은 『일본서기』에 보이는 후기 가야 13국 중의 하나로서, 지금의 창원지역으로 비정된다. 이것으로 볼 때 중국 군현의 축출로 인해 고자국은 새로운 교역대상으로 백제와의 교역을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자국과 영산강유역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묘제나 출토유물 등 고고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특징으로 분구묘, 주구 설치, 다곽식 등이 그것이다. 송학동 1호분, 울대리와 내산리의 분구묘 역시 영산강유역의 신연리 5호분 등과 상통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들 분구묘가 해안에 가까운 고성 일부 지역에만 분포하는 것도 해양을 통한 교류의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고성의 고분군과 토기 등으로 볼 때 ‘영산강-소가야-왜’라는 교역루트를 예상할 수 있다. 즉 고자국은 영산강 세력 및 왜와의 관계를 통하여 나름대로 독자성을 가진 교역망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고자국의 대외교역망을 잘 보여주는 유적이 송학동고분군인데, 소가야의 권역을 대표하는 고분군으로 현재 고성읍 중심지의 북쪽 구릉에 자리 잡고 있다. 크고 작은 7기의 고분이 분포하는데 송학동 1호분은 일본 고분시대 수장의 전형적 무덤형태인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1999년 11월에서 2000년 3월까지 시행된 조사결과 각각의 원분(圓墳) 3기가 단순히 겹쳐진 형태로서 전방후원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

동아대박물관에 의하면, 송학동고분군은 5세기 중반에서 6세기중반까지 조성된 고자국의 최고지배층인 수장급 무덤이며, A,B,C호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송학동 1호분은 1A호분과 1B호분을 깎아 그 사이에 1C호분을 축조하였는데, 이러한 중복현상은 경주지역의 황남대총이나 전남 나주 북암리고분과 같이 의도적으로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인공산을 만들어 필요할 때 마다 다시 파 들어가면서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시신을 묻는 축조방법은 가야지역의 일반적인 방법과 다르다. 이러한 무덤을 분구묘(墳丘墓)라 하는데, 고성 동해면 내산리고분군, 고성읍 울대리고분군 뿐만아니라 영산강유역, 일본 큐슈, 간사이 지방 등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고성지역은 이들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B호분의 채색된 돌방(석실)과 돌방 중앙에 연도를 배치한 구조와 형태도 영산강유역의 장성 영천리고분, 해남 장고산고분, 그리고 일본의 돌방무덤에서 확인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고성지역이 가야시기에 활발한 대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11) 『일본서기』 권9, 신공기 46년(366년)조.

천장에 붉은 칠을 한 석실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왜의 영향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확인된 유구가 서쪽에 연도를 갖춘 횡혈식석실분이라는 점과 석실내부가 모두 채색된 고분이라는 송학동고분군의 특징은 가야지역은 물론 삼국시대 고분에서 처음 발견된 자료이므로 삼국시대 고분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채색고분은 일본의 큐우슈우(九州)지방과 칸사이(關西) 고분시대의 고분에서도 흔히 발견되고 있어서 한일간의 고분연구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석실의 구조는 가야지역의 수혈식 석곽과 백제 지역의 횡혈식 석실 특징이 혼재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부장된 유물에서 신라토기가 보이므로 신라와의 교류흔적도 엿볼 수 있다.

내산리고분군에서도 대외교류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에 소재한 소가야 지배집단의 중심묘역중 하나인 고성 내산리고분군은 남해안 적포만 일대의 낮은 구릉(해발 10~20m)에 65기 이상의 중·대형 봉토분이 밀집 분포하는 고분군이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7차년에 걸친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고성 내산리고분군의 봉분축조 특징 중 하나는 영산강유역을 벗어나 최근에는 군집된 양상으로 서해안 일대까지 그 발견 예가 증가하고 있는 이른바 ‘분구묘(墳丘墓)’이다.

출토유물은 굽다리긴목단지(瓔珞附臺附長頸壺)와 같은 신라계토기와 구멍무늬토기(有孔廣口小壺)와 같은 백제계토기, 일부 왜계로 보이는 토기, 발걸이(鎧子) 등이 다수 출토되고 있는 바, 고성 내산리고분군의 구조적 특징과 함께 출토유물에서도 6세기 전반대를 전후하여 내산리고분군을 축조한 정치체가 해안에 근접한 지리적 조건을 배경으로 당시 활발한 대외교류를 다각도로 실시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제 3항. 고자국의 권역

고자국의 권역은 시기에 따라 달랐을 것이다. 그 중심은 현재의 고성군지역이었을 것이며, 고자국 세력이 강력했을 때에는 그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인근 사천지역 및 거제, 남해까지 그 영향력이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행정권역의 편성과 그 변천을 통하여 추정해 볼 수 있다.

○ 고성군(固城郡)은 본래 고자군(古自郡)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도 그대로 쓴다. 영현이 셋이다. 문화량현(蚊火良縣)은 지금[고려]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사수현(泗水縣)은 본래 사물현(史勿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의 사주(泗州)이다. 상선현(尙善縣)은 본래 일선현(一善縣)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다.

지금[고려]의 영선현(永善縣)이다.(『삼국사기』 권제34 잡지 제3 지리1 강주 고성군조)

○ 고성현은 본래 소가야국(小加耶國)이었는데 신라가 이를 차지하여 고자군(古自郡)을 설치하였다. 경덕왕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군으로 삼았다. 성종 14년에 고주자사로 삼았다가 후에 현으로 낮추었다. 현종 9년에 거제에 속하게 했다가 후에 현령을 두었다. 원종 7년에 군을 승격시켜 주로 삼았다. 충렬왕 때에는 남해와 합쳤다.(『고려사』 권57, 지11, 지리 고성현조)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사천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고려사』 지리지에 “고려 현종대에는 고성이 거제에 속했다가 충렬왕대에는 남해와 합쳤다.”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고성군의 행정구역이 유동적이고 넓은 권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성의 지리적 조건이 바다를 매개로 하여 주변 제 도서지역과 쉽게 연결망을 가질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남해도는 『일본서기』에 문모라(汶慕羅)섬으로 나오는데, 오랜 기간 고자국의 한 읍락으로 소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남해도와 거제도는 비교적 큰 섬지역이나 가야 멸망되는 시기까지 정치집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거제와 남해는 각각 문무왕대와 신문왕대에 비로소 군이 설치되고 있다.

현재의 고성군 지역 전체가 고자국의 권역이었을 가능성도 적다. 고성군 내륙지역인 영오면, 영현면, 개천면 지역은 3세기 이전의 고자미동국 권역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지리적으로 진주에 더 가깝고 현재도 고성읍에서 이 지역으로 통하는 길은 산으로 나 있는 험한 지방도로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것도 직선거리가 아니라 진주지역으로 통하는 국도를 경유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19세기 지리서인 『여지도서』에 나타난 고성의 권역이 이들 지역을 제외하고 있는 사실도 참고가 된다.

따라서 고성을 중심으로 한 정치·문화적인 권역 설정은 좁게는 지금의 고성군에서 북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남부지역, 가장 넓게는 고성·통영·사천·남해·거제 등을 권역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시기에 따라 그 범위는 유동적이었다.

사천·고성식, 진주식 등으로 불려지고 있는 고자국[소가야] 양식의 토기는 고성과 사천을 비롯하여 남강 수계의 진주, 의령, 하동, 산청 등의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들을 고자국의 지배권역으로 볼 수는 없지만 교역권으로 이해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제 4항. 포상팔국(浦上八國)전쟁과 고자국

포상팔국전쟁 관련기사에서 고성지역의 국명은 고자국, 고사포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기

록은 고자국의 성장과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 포상팔국이 모의하여 가라(加羅)를 침략했다. 가라왕자가 와서 구원을 요청하자, 왕이 태자 우로(于老)와 이별찬 이음(利音)에게 명하여 6부(部)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가라를 구하게 했다. 포상팔국의 장군을 쳐서 죽이고 사로잡혔던 6천여인을 빼앗아 돌려주었다.(『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 2, 나해니사금(奈解尼師今) 14년(209), 가을 7월)

○ 물계자(勿稽子)는 나해니사금때의 사람으로서 집안은 한미하였으나 사람됨이 쾌활하여 어릴 때부터 큰 뜻을 품었었다. 당시 팔포상국(八浦上國)이 함께 모의하여 아라국(阿羅國)을 침입하므로 아라가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하니 니사금이 왕손(王孫) 날음(捺音)을 시켜 가까운 군(郡)과 육부군(六部軍)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케 하니 드디어 팔국병이 패하였다. (중략) 그 뒤 3년에 골포(骨浦)·칠포(柒浦)·고사포(古史浦)의 삼국인이 갈화성(竭火城)에 와서 침공하므로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구원하니 삼국의 군대가 대패하였다.(『삼국사기』 권48 열전8 물계자전)

○ 제10대 나해왕(奈解王) 즉위 17년(212) 임진(壬辰)에 보라국(保羅國)·고자국(古自國) [지금의 고성]·사물국(史勿國) [지금의 사주(泗州)] 등의 8국이 힘을 합하여 변경을 침략하므로 왕이 태자 날음과 장군 일벌(一伐) 등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막게 하니 팔국이 모두 항복하였다.(중략) 10년¹²⁾ 을미(乙未)에 골포국(骨浦國) [지금의 합포(合浦)] 등 삼국왕이 각기 군사를 이끌고 갈화(竭火) [굴불(屈弗)인듯하니 지금의 울주(蔚州)] 을 공격하니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이를 막으니 삼국이 모두 패하였다.(『삼국유사』 권 제5 피은 제8 물계자전)

위의 기사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나해니사금 14년(209)에 포상팔국이 모의하여 가라를 침략했다. 가라왕자가 신라에 구원을 청하니 왕이 태자 우로와 이별찬 이음으로 하여금 6부병을 이끌고 가서 구원하게 했다.

② 포상팔국이 함께 모의하여 아라국을 침입하므로 아라가 사신을 보내어 구원을 청하니 왕이 왕손 날음으로 하여금 군과 6부군을 이끌고 가서 구원하게 했다. 3년 뒤에 골포·칠포·고사포의 삼국인이 갈화성을 침공하므로 왕이 패퇴시켰다.

③ 나해왕 17년(212)에 8국이 힘을 합하여 변경을 침략하므로 왕이 태자 날음과 장군 일

12) 원문에는 ‘十年 乙未’로 되어있으나, 二十年의 오기이다. 215년이 을미년이기 때문이다.

벌 등에게 명하여 막게 했다. 20년(215)에 골포국 등 삼국왕이 갈화를 공격하므로 왕이 패퇴시켰다.

기록에 근거해 보면 포상팔국이 전쟁을 벌인 것이 두 번이며, 포상팔국 중에서 골포, 칠포, 고사포 3국이 전쟁한 것이 한 번이다. 기록대로라면 209년에 가라를 공략했고, 212년에 아라를 공격했으며, 215년에 갈화성을 침공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견해는 209년의 전쟁과 212년의 전쟁을 동일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당시 포상팔국의 상황에서 7년에 걸쳐 세 차례의 전쟁을 치루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김해의 가락국과 함안의 아라가야는 변한을 대표하는 유력한 정치집단이었으며, 울산지역인 갈화성은 사로국의 해외교역항이자 남해안으로의 진출기지였기 때문이다. 또한 209년에 포상팔국 장군이 죽었을 정도로 커다란 패배를 당하고 다시 3년 만에 아라를 공격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삼국사기』 열전의 기록이 연대순으로 잘 서술되어있고, 『삼국유사』의 물계자전과 일치하므로 두 역사서의 열전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에서 볼 때 종합해보면 『삼국사기』 본기의 기록보다는 열전의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며, 『삼국유사』의 기록이 『삼국사기』 열전보다 연대기적으로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212년 아라를 침략하였고, 215년에 골포국 등 3국이 갈화성을 공략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포상팔국전쟁기사는 가야사의 발전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가야사에 대한 기록으로는 드물게 한국고대사의 기본자료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고 서술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록에 대한 가야사 연구자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그만큼 기록을 보는 시각도 다양하다. 특히 포상팔국전쟁에 대한 전쟁시기, 전쟁대상, 포상팔국의 범위, 전쟁의 성격에 대한 입장이 그러하다.

[표5] 포상팔국전쟁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

구분	백승충	이현해	권주현	김태식	백승욱	남재우
전쟁시기	3세기 초반	3세기 초반	3세기 초반	4세기전반	3세기후반	3세기말
전쟁대상	김해	김해	김해	김해	김해와 함안	함안
전쟁목적	가야국의 쇠퇴로 인한 교역권을 둘러싼 대립	교역권을 둘러싼 대립	변한계소국의 주도권 쟁탈전(안야국 중심의 포상팔국지역연맹체와 금관가야 중심의 지역연맹체)	해상교역권을 둘러싼 가야세력권의 내분	교역권 쟁탈과 농경지 확보를 위한 내륙지역 진출	농경지의 확보를 위한 내륙지역으로의 진출

포상팔국전쟁은 변한사회의 중요한 변화의 계기, 또는 가야사회발전의 획기라고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전쟁으로 인한 사회변화에 수반되는 문화적 양상도 달리 나타나야 할 것이다. 3세기말 4세기초반의 시기에는 낙동강 서남부지역의 고고학적 유적·유물 양상이 이전의 시기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식도질토기가 출현하고, 3세기 후엽에는 부곽을 가진 대형목곽묘가 등장하며, 4세기대 이후의 지배자 분묘에서는 철소재가 다량으로 부장되었다. 4세기대부터는 도질토기의 기형이 부산김해지역군과 서부경남지역으로 나뉘어지며, 철제갑주가 출현하며, 철제농기구의 발전에 따른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3세기말 4세기초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경남남부지역의 이러한 고고학 자료의 변화는 사회 변화와 맞물려 있으며, 그 변화의 계기가 포상팔국전쟁이었으며, 전쟁의 시기는 3세기말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전쟁대상에 대해서는 전쟁의 성격을 해상교역권을 둘러싼 정치집단간의 전쟁으로 이해하여 해상교역을 주도하고 있었던 김해지역을 전쟁대상으로 설정하고 가라(加羅)를 김해지역으로 이해했다. 즉 김해 가락국의 해상교역권을 빼앗기 위한 전쟁으로 추정했던 것이다. 하지만 포상팔국에 속하는 ‘국(國)’ 들은 왜(倭) 또는 중국 군현(郡縣)과 접촉하는 데 지리적으로 특별히 불리하거나 소외될 이유가 없었다. “경남해안일대의 정치집단들은 그 자체가 Gateway Community(관문사회(關門社會))로 기능했으며, 이들을 하나로 통괄하는 上位의 주체를 설정하기 어렵다. 또한 고고학 자료로 보아서도 김해지역이 중국 군현 또는 왜와 독점적인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화천(貨泉), 오수전(五銖錢)과 같은 중국 화폐가 전남 해남지역, 거문도를 비롯해 경남 김해, 창원, 제주도 등 남해안 일대에 두루 발견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라는 견해가 있어 참고가 된다.

따라서 교역상으로 대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포상팔국이 굳이 김해를 대상으로 전쟁을 했을 가능성은 적다. 또한 포상팔국전쟁이 일어나는 3세기말의 상황은 중국 군현과의 교역이 쇠퇴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3세기에 들어서면 중국이나 한군현으로부터 수입된 위세품(威勢品)은 분묘유적에서 거의 부장되지 않고 주로 무기류가 부장되고 있다. 이것은 3세기대 이후부터 선진문물의 수입을 통한 지배세력의 정당성 확보라는 단계에서 벗어나 정치집단의 외연확대, 즉 정복전쟁을 통한 영역확대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철제농기구의 보급으로 농경지확보도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다.

또한 포상팔국은 고성, 창원, 칠원 등지에 입지한 정치집단이었기 때문에 교역을 통한 정치적 발전은 용이하지만, 외부의 침입이 잦았던 지역이다. 따라서 포상팔국은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농경지를 확보할 수 있고, 외적 침입을 방어할 수 있는 내륙지역으로 진출하려 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고성, 창원, 칠원 지역으로 둘러싸인 함안지역이 포

상팔국이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최적지였을 것이므로, 전쟁대상지역은 아라가야[阿羅] 즉 함안지역이었다. 함안지역은 남강을 건너 서부경남 내륙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였다. 하지만 전쟁에서 포상팔국은 패배했고 이로 인하여 함안의 아라가야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포상팔국의 일부는 쇠퇴하여 아라가야의 권역에 포함되기도 했으며, 일부는 후기가야의 일원으로 발전하였다. 고자국, 고사포는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가야 13국 중 하나인 구차(久嗟), 고차(古嗟)로 변화했다.

포상팔국은 남해안을 매개로 성장했던 정치집단이었다. 그리고 현재의 포상팔국의 위치 비정으로 보아 변한지역에 자리잡은 정치집단이었다. 현재 지명비정이 가능한 나라는 골포국(창원), 칠포국(칠원), 사물국(사천), 고사포국(고성)이다. 이들 나라 중에서 『삼국지』에 등장하는 변한계국 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고사포국 즉 변진고자미동국 하나이다. 나머지는 중복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들 나라들은 진변한의 대국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신라에 멸망한 이후 군이나 현으로 편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슷한 규모의 정치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고사포국에는 고자군(古自郡)이 설치되었고, 사물국이 있었던 사천지역은 사물현(史勿縣)이 되었으며, 골포국이 있었던 창원지역은 굴자군(屈自郡)이 되었다. 칠포국은 칠토현이었다.

[표6] 포상팔국에 대한 연구자의 위치비정

연구자 국명	『삼국 유사』	김정호	정약용	이병도	三品彰英	김정학	백승충	남재우
골포(骨浦)	합포	창 원	창 원	창 원	마 산	창 원	함 안	창 원
칠포(漆浦)		홍해(?)	칠 원	칠 원	칠 원	칠 원	칠 원	칠 원
고사포(古史浦)		경 산	고 성	고 성	고 성	고 성	진 해	고 성
고자국(古自國)	고성	고 성		고 성	고 성	고 성	고 성	고 성
사물국(史勿國)	사주	사 천		사 천	사 천	사 천	사 천	사 천
보라국(保羅國)	나주				고성부근(?)			
예정지역			웅천, 함안, 진해, 사천, 곤양					웅천, 거제, 삼천포, 진동만일대

포상팔국전쟁에 대한 이상의 이해를 바탕으로 소가야의 실체에 접근해 볼 수 있다. 고자국은 골포, 칠포와 함께 두 차례 전쟁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1차전쟁 뿐만아니라 갈화성 공격에도 참여했다. 갈화성 공격에는 골포국, 칠포국과 함께 3국만 참여하고 있다. 이로 보아 고자국은 1차전쟁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포상팔국 중에서는 강력한 정치집단이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자국이 포상팔국동맹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농경지확보가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3세기 후반이후 변한사회 내부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도질토기(陶質土器)의 출현, 철제무구류(鐵製武具類)의 발전, 대형목곽묘(大形木槨墓)의 등장은 사회적 발전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포상팔국은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서 1~2세기 동안 중국 군현과의 교역과 교류를 통하여 선진적인 문화를 수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포상팔국의 입지조건이 해안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교역에는 유리했지만, 해상으로부터의 외세침입이 잦은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는 농지확보를 통한 농업생산력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했다. 철기의 사용이 보편화된 것도 농지의 필요성을 부채질했다.

이에 포상팔국은 내륙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었고, 가장 합당한 지역이 함안의 아라가야였다. 함안지역은 그 자체로도 농업기반을 확보하고 있었고, 함안지역으로 진출하고 나면, 남강을 건너 의령, 진주 등지의 경남 내륙지역으로도 진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성지역의 경우 다른 포상팔국에 비해 농업적 입지 조건이 나았지만, 해안에 위치한 것은 불리한 조건이었다. 따라서 인근의 정치집단들과 함께 함안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것이다.

포상팔국이 이렇게 농경지 확보를 위한 전쟁을 벌였던 것은 후기가야에서 고령 대가야의 성장 모습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고령의 대가야가 5세기대 이후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내륙지대가 가지고 있는 농업적 기반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하지만 포상팔국은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 전쟁결과 함안의 아라가야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고자국을 비롯한 포상팔국은 쇠퇴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포상팔국이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울산지역의 갈화성을 공략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단순히 1차 전쟁때 아라국[아라가야]을 구원한 신라에 대한 복수를 위한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울산지역은 신라의 해외교역항이자 남해안으로의 진출기지이지만 전쟁을 일으킨 골포국 등 3국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고자국 등이 울산지역을 공략한 이유는 아라국에 대한 구원으로 아라국과 신라와의 관계가 긴밀해지면 가장 커다란 타격을 받는 쪽은 포상팔국이었다. 2차전쟁에 고사포[고자국] 등 삼국만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1차전쟁으로 인하여 나머지 나라들이 커다란 타격을 입었거나 아라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아라국과 3세기말부터 인근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한 신라와의 관계가 두터워진다면 고자국 등을 비롯한 포상팔국이 성장은 봉쇄당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소가야 등은 신라의 남해안 진출기지인 울산지역을 공략함으로써 신라가 남해안으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조차 고자국 등은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이상으로 볼 때 소가야는 포상팔국 중의 하나였고, 두 차례의 전쟁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갈화성 공략에 고사포국, 골포국, 칠포국 3국만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1차전쟁에서의 패배로 나머지 나라들은 쇠퇴하였거나 아라국의 영향력 아래에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3국은 1차전쟁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건재했다. 하지만 갈화성 공격에도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고자국을 비롯한 3국은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포상팔국전쟁으로 아라국은 급성장했다. 고사포국은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그 세력은 유지되었다. 『일본서기』에 보이는 후기가야 13국 중의 하나인 구차 또는 고차는 고사포국 즉 소가야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야 전기의 고사포 혹은 고자국은 포상팔국전쟁이후 고차 혹은 구차국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고성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내산리고 분군, 송학동고분군 등의 가야유적은 후기가야의 고차 혹은 구차국이 있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제 5항. 고구려 남정(南征)과 고자국

가야사회 내부의 변화를 가져온 또 다른 사건이 400년에 일어난 광개토왕 남정이다. 왜가 신라를 공격함으로써 신라가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했고, 이에 고구려의 광개토왕은 5만의 군대를 파견했던 것이다.

○ 10년(400) 경자(庚子)에 교서로써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어 신라를 구하게 하였는데 남거성(男居城)을 따라 신라성(新羅城)에 이르니 왜(倭)가 그 중에 가득했으나 관군(官軍)이 이르니 왜적이 퇴각하였다. 왜의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任那加羅) 종발성(從拔城)에 이르니 성(城)이 즉시 항복하였다.

여태껏 400년에 일어난 고구려 남정을 ‘고구려-신라’의 연합군과 ‘백제-가야-왜’ 연합간의 전쟁이라 이해해왔다. 이러한 입장은 가야제국이 김해 가락국을 중심으로 연맹체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연맹체의 맹주국이었던 임나가라 즉 가락국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았으므로 가야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백제-왜의 연합군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문이 남는다. 고구려의 남정에서 김해의 가락국인 임나가라는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아라가야[안라국]는 전쟁이후 오히려 정치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쟁에서 아라가야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가락국이나 왜와 연합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와 신라의 연합군에 동조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광개토왕비문에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이라는 기록이 세 차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전쟁에 참여한 것은 확실하므로 아라가야는 고구려

의 편에서 전쟁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라가야는 400년 전쟁에서 고구려의 편에 섰기 때문에, 김해지역과 달리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해 가락국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경남 서남부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틈을 타서 아라가야가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되었다. 5세기 초엽부터 낙동강 서남부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대형목곽 묘가 등장한다든지, 분묘에 다량의 철제무구류가 등장하는 것은 아라가야가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나아가 6세기 초의 아라가야가 가야사회에서 중심적인 외교활동을 벌이는 모습도 이러한 사실의 반영하는 것이라 추정된다. 물론 5세기대의 아라가야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세한 발전과정을 알 수는 없지만, 함안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확대된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400년의 전쟁은 고구려-신라 대 백제-왜-가락국 중심의 가야연맹 간의 전쟁으로만 볼 수 없다. 고구려-신라와 임나가라-왜의 전선이 중심축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제국 모두가 고구려와 전쟁을 벌였던 것이 아니라 아라가야는 고구려측에 동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흔히들 백제가 이 전쟁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광개토왕비문」에 백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전쟁에 백제가 참여했다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고구려와 신라연합군이 임나가라 즉 김해지역의 가락국을 정벌한 전쟁은 가야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첫째, 전쟁으로 인하여 가락국이 커다란 타격을 입었고, 이를 계기로 낙동강의 동쪽 지역인 경북 성주, 밀양, 부산 동래, 양산지역이 신라의 영역권으로 포함되고 낙동강 하구의 주요 세력이 궤멸됨으로써 가야는 해상교역의 이익을 대폭 상실하게 되었다. 둘째, 신라는 가야와 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나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을 받게 되었다. 셋째로 김해의 가락국이 쇠퇴한 대신에 경상도 내륙지역의 가야제국과 왜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전기 가야문화의 중심지였던 낙동강하구의 주민들이 흩어져 경상 내륙지역과 일본 열도 등으로 이주하면서 제철 및 철기 가공기술, 도질토기 제조기술 등이 전파되었던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 외에 광개토왕의 남정이 가야지역에 미친 영향은 가야지역 중심세력이 교체되었다는 사실이다. 가락국이 전쟁에 패배함으로써 가락국이 쇠퇴하게 되고 아라가야와 대가야가 가야지역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즉 후기가야가 시작된 것이다.

고구려의 남정이 고성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 곤양군(昆陽郡)은 본래 고려[고구려]의 곤명현(昆明縣)이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 31, 곤양군 건치연혁조)

○ 또 창선도(彰善島)가 있다.[창선도는 본래 고구려 유질부곡(有疾部曲)이었다. 고려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고 승격시켜 현(縣)으로 하고 주(州)에 소속시켰다. 충선왕이 즉위하자 피휘(避諱)하여 다시 흥선(興善)이라 고쳤다. 후에 왜구의 침입으로 사람들이 모두 없어 지자 직촌(直村)으로 하였다.(『고려사』 권57 지리2 진주목조)

위의 기록은 광개토왕의 남정 때에 고구려군이 주둔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곤양(昆陽)은 사천만(泗川灣)을 통해 해안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길목에 위치한 곳이다. 남해안인 이곳이 고구려의 현(縣)이었다는 것은 기록상의 착오로 볼 수도 있지만 곤양 남쪽의 창선도가 본래 고구려의 유질부곡이었다는 기록과 관련지어 볼 때 착오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고구려가 창선도와 곤양지역에 군대를 주둔하게 된 것은 이곳이 백제의 가야 진출로인 섬진강 동편의 중요한 항구인 동시에 왜와 백제의 주요 교섭창구였기 때문에 이를 차단할 목적으로 고구려가 이 지역을 점령한 것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400년 고구려의 남정과정에서 가까워진 아라가야와 고구려가 힘을 합쳐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보였을 가능성도 있다.

고구려가 군대 5만을 파견하여 임나가라 종발성, 즉 김해지역까지 남진한 것은 신라의 구원 요청 때문만은 아니었다. 한반도에서의 적대세력이었던 백제를 고립화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즉 백제와 왜의 교역로를 차단함으로써 백제와 왜의 동맹체제를 해체하고, 신라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여 백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백제와 왜의 교역로인 낙동강이서 남부가야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인식은 백제와 왜에 대한 견제를 위해 서라도 중시되었을 것이다. 백제의 대왜(對倭) 및 남부해안 지역으로의 진출입구인 현 창선도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것이다. 이러한 지점에 고구려는 그들의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이러한 모습이 후대에 ‘본래 고구려의 유질부곡이다’, ‘본래 고구려의 곤명현이다’의 형태로 남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고구려의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관심은 지속되지 못했다. 6세기대에 고성지역에 독자적인 정치집단으로서의 고차국[고자국]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제 4절 고자국의 성장과 멸망

제 1항. 고자국의 성장

고성지역은 포상팔국전쟁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야에 속하는 정치집단이 자리잡

고 있었다.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구차국 혹은 고차국이 그것이다. 즉 고자국은 6세기 전반까지도 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고학자료를 통하여 볼 때 고자국문화권은 이전보다 확대되었다. 문화권을 통하여 고자국 중심의 교역권을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즉 고성지역에 독자적인 세력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 고성식토기이다. 고성식토기의 분포권은 고성을 중심으로 하여 거제, 창원 진동, 진주, 하동에 이르고 있다. 이 권역을 고자국의 정치적 지배권역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들 지역과의 교역을 통하여 영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있다.

5세기대 이후의 고자국 정치집단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은 고분군들이다. 고성군 고성읍 송학동·울대리·기월리 고분군, 마암면 도전리·석마리·화산리 고분군, 대가면 연지리·송계리 고분군, 영오면 연당리·오동리·영대리·성곡리 고분군, 영현면 성산리 고분군, 하일면 학림리·오방리 고분군, 거류면 거산리 고분군, 동해면 내산리·양촌리 고분군 등이다. 가장 대규모인 것이 송학동고분군이다. 이를 호위하는 것처럼 위치해 있는 고성읍 성내리의 고성성지와 수남리의 남산성지가 근처에 포진해 있으며, 영오면 연화산성·탕근산성, 거류면 거류산성, 동해면 철마산성도 이 시기의 유적으로 추정된다.

기록에서도 고자국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 『일본서기』 흠명기 5년(544) 11월조에 의하면, 구차한기(久嗟旱岐), 즉 고성지역 구차국의 수장이 아라가야와 대가야 등 7국의 대표들과 함께 백제에 가서 성왕이 주도했던 사비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표7] 사비회의에 참여한 가야제국과 참석자

국 명	흠명기 2년 (541) 4월		흠명기 5년 (544) 11월	
	지 위	인 명	지 위	인 명
안라(安羅)	차한기(次旱岐)	이탄해(夷呑奚) · 대불손(大不孫) · 구취유리(久取柔利)	하한기(下旱岐)	대불손(大不孫) · 구취유리(久取柔利)
가라(加羅)	상수위(上首位)	고전해(古殿奚)	상수위(上首位)	고전해(古殿奚)
졸마(卒麻)	한기(旱岐)		군(君)	
산반해(散半奚)	한기아(旱岐 兒)		군아(君 兒)	
다라(多羅)	하한기(下旱岐)	이타(夷他)	이수위(二首位)	흘건지(訖乾智)
사이기(斯二岐)	한기아(旱岐 兒)		군(君)	
자타(子他)	한기(旱岐)		한기(旱岐)	
구차(久嗟)			한기(旱岐)	

두 차례의 사비회의를 통하여 6세기대 이후의 가야정세와 고자국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

다. 6세기대는 백제와 신라가 가야지역으로 진출하던 시기였다. 신라는 가야지역의 남가라, 탁순, 탁기탄 3국을 정복하고, 이를 발판으로 가야지역에 대한 영역팽창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백제도 성왕이 사비로 도읍을 천도한 이후 중흥을 모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백제와 신라는 북쪽지역의 강대국이었던 고구려의 남하정책에 대비해야 했으므로 가야지역을 두고 패권다툼을 벌일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가야 제국(諸國)은 독립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중 가장 유력했던 정치집단이 고령의 대가야[加羅]와 경남 함안의 아라가야[安羅國]였다. 아라가야에는 왜의 사신들 즉 왜신(倭臣)들이 주재하고 있었다. 아라가야는 왜신들을 가야제국이 백제와 신라로부터의 압력을 막아내는 방패막이로 적극 활용했다. 왜신들 또한 아라가야와 가야제국으로부터 선진문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아라가야의 입장을 적극지지하고 있었다.

가야제국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백제와 신라의 위협으로부터 가야지역을 지켜내기 위해 외교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보조를 취하기도 하였다. 가야제국이 사비회의에 참여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사비회의는 백제의 성왕, 가야 각국의 대표자들, 아라가야에 주재했던 왜신들이 참여했던 회의이다. 두 차례에 걸쳐 백제의 수도인 사비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개최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서기』 흠명기에 잘 드러나고 있다.

1차 사비회의(泗泚會議)의 참석자는 안라(安羅 ; 함안)·가라(加羅 ; 고령)·졸마(卒麻)·산반해(散半奚)·다라(多羅)·사이기(斯二岐)·자타(子他) 등 가야지역 7개국의 한기(旱岐)들과 가야지역에 파견된 왜의 사신이었던 키비노오미[吉備臣]이었다. 백제 성왕의 주도로 가야 각국의 한기들은 이미 신라에 의해 멸망한 가야 3국(탁순, 탁기탄, 남가라) 재건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가야 각국의 대표들은 자신들의 독립 보장 및 백제와 화친하게 될 때 예상되는 신라의 공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하지만 백제 성왕은 가야의 문제에 대하여 이미 왜와 협조하고 있음을 과시하고 만일 신라가 쳐들어오면 가서 구해줄 것이라는 말을 한 뒤 선진문물을 나누어 줄 뿐이었다. 백제는 가야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없이 가야제국을 친백제적인 세력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신라에 의해 멸망된 3국에 대한 진단도 신라가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가야내부의 문제로 돌렸다. 즉 백제가 신라의 가야침공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가야지역의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가야제국과 백제간의 1차 사비회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가야제국은 오히려 신라와 접촉하였다.

하지만 백제 성왕은 가야제국에게 계속 사비회의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가야와 가야제국은 백제가 가야지역에 설치했던 군령성주(郡令城主)의 철수를 원하는 가야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아라가야에 주재한 왜신들의 철수만을 요구했기 때문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544년 11월 2차 사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대가야, 아라가야와 함께 고성지역이 구차국 등 8개국이 참여했다. 가야제국이 종래의 입장을 뒤집고 회의에 참여했던 이유는 백제의 구체적인 정책제시가 있었기도 했지만, 아라가야지역으로 진출하는 통로에 백제의 군령성주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백제를 계속적으로 외면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백제 성왕은 세 가지 계책을 제시했다.

첫째, 가야지역 보호를 위하여 신라와 아라가야의 경계인 낙동강변에 6성을 쌓고 그곳에 왜 병사 3천명과 백제군을 주둔하게 하고 그 비용은 백제가 충당한다. 둘째, 가야지역에 주둔해 있던 백제의 군령성주를 내보낼 수 없다. 군령성주를 두는 것은 가야와 왜의 교통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고 고구려와 신라의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철수할 수 없다. 셋째, 아라가야에 있었던 왜신인 키비노오마가후치노아타하이나사마도 네 사람은 가야 재건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백제와 가야제국이 뜻을 같이하여 왜국왕에게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요청하자.

이러한 성왕의 계책은 가야제국에게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었다. 6성을 쌓고 지킨다는 제안은 가야의 입장에서 볼 때 백제의 군사를 동원하여 성을 쌓고 주둔하게 하려는 의도로 비추어 졌다. 왜가 3천의 군대를 가야지역에 파견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백제의 군대가 아라가야와 신라의 경계에 주둔하게 된다면 신라의 침략은 막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백제의 위협은 가중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또한 군령성주를 유지하는 것이 고구려와 신라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가야제국으로 볼 때는 엄연한 영토침탈이었다. 세 번째 계책은 아라가야에 주재하고 있었던 왜신들은 아라가야에 있으면서 아라가야의 이익과 가야제국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라와의 외교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아라가야와 가야제국의 입장에서 이들을 축출하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회의에 참여했던 가야제국의 대표들은 성왕에게 답하지 않고 안라왕[아라가야왕]·가라왕[대가야왕]에게 답변을 미루었다. 결국 제2차 사비회의도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백제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백제는 가야제국의 세력가들과 안라에 있었던 왜신들에게 중국의 선진문물을 나누어 주었다. 왜에게는 방물을 주거나 기술자 또는 학자 등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왜는 백제와 교역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548년 1월에는 군대파견을 약속했다.

이처럼 백제와 왜의 관계가 진전되자 가야제국은 백제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백제와 왜의 연합군이 가야지역에 주둔한다면 가야전체가 백제의 영향권 아래 편입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아라가야는 몰래 고구려에게 백제 정벌을 요청했다. 고구려는 548년 정월에 백제의 독산성 즉 마진성을 공격했다. 하지만 신라의 구원으로 고구려는 패배했다. 이 전쟁에서 고구려측 포로에 의한 “안라국[아라가야] 및 왜신이 백제의 처벌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증언이 아라가야와 고구려가 비밀리에 통교하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아라가야는 백제에게 더 이상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제국은 친백제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사비회의에는 백제 성왕, 가야제국의 대표자들, 아라가야에 주재하고 있던 왜신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회의 참석의 목적은 달랐다.

백제는 사비회의 개최에 적극적이었다. 고구려 장수왕의 백제 수도 한성공략(475년)으로 인한 개로왕의 죽음은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백제는 한성을 잃음으로써 성장의 기반이었던 한강유역을 상실하고 성왕은 도읍을 공주에서 사비로 다시 옮기면서(538년) 국가의 부흥을 시도하였다. 성왕이 의도했던 부흥의 방향은 한강유역을 회복하려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구려와의 대립과 갈등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백제는 가야와 왜를 부용화시켜 가야지역에 대한 진출을 도모하고 있었던 신라를 견제함으로써 후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성왕의 언급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 “북적(고구려)은 강대하나 우리(백제)는 미약하다. 만약 남한에 군령성주를 두고 성을 보강하여 방어하지 않으면 이 강적(고구려)을 막을 수 없다. 또 신라를 제어하지 못할 것이다.” (『일본서기』 흠명기 5년(544) 11월조)

백제의 성왕이 가야재건을 위해 사비회의를 개최한다고 하였지만, 가야지역에 군령성주를 설치한다든지, 아라가야에 주재하고 있던 왜신들이 친신라적인 성향을 띠었다고 하여 왜와 가야제국에게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구하고, 낙동강변에 6개의 성을 축조하려고 했던 것은 가야 재건과는 거리가 멀다. 백제는 사비회의를 통하여 가야와 왜를 부용화함으로써 신라의 영역확대를 견제하고 고구려에 대항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야제국의 지배층과 왜신들에게 중국의 선진문물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왜 본국에도 선진문물을 매개로 적극적인 외교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결국에는 왜가 친백제화되었고,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제국 또한 친백제적 외교노선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제국은 사비회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제국은 백제와 신라의 가야지역 진출과정에서 가야지역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다. 신라는 남가라[가라국] 등 3국을 멸망시키고 계속적으로 가야지역으로의 영역확대를 도모하고 있었고, 백제는 섬진강을 따라서 하동지역으로 진출하면서 가야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가야의 유력국이었던 대가야는 가야남부지역의 강자였던 아라가야와 함께 가야제국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외교노력을 기울였다. 아라가야에 주재했던 왜신들을 활용하여 친신라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다. 또한 사비회의에도 참석하였다. 하지만 백제 성왕이 가야제국을 내세우며 개최했던 사비회의는 가야제국이 목적이 아니라 백제의 가야와 왜에 대한 부용화정책일 뿐이었다. 백제에게 사비회의는 가야와 왜를 이용하여 고구려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백제는 가야제국의 군령성주 철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야제국의 편에서 활동했던 왜신들을 왜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였으며, 신라의 침략 위협을 제거해주지도 못했다. 따라서 가야는 사비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사비회의는 끝이 났다.

이러한 사비회의에 고자국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로 보아 고자국은 광개토왕남정 이후에도 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가야 제국의 일원으로서 가야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야제국과 연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고자국의 정치적 발전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비회의 기사인 것이다. 고고학 자료로는 송학동고분군이 이 시기의 소가야의 정치사회적 발전을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제 2항. 고자국의 멸망

고자국의 멸망과정을 알려주는 기록은 없다. 다만 가야 전역이 신라에 의해 멸망하는 시기인 6세기 중엽까지는 존속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서기』에 나타나는 가야 제국 멸망기사 속에 임나(任那) 10국의 하나로서 고성지역에 위치했던 고차국(古嵯國)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23년(562) 정월에 신라가 가야 제국(諸國)을 쳐서 멸망시켰다. [一本에는 21년에 임나가 멸망하였다 하고 총칭하여 임나라 하며 별도로는 가라국(加羅國)·안라국(安羅國)·사이기국(斯二岐國)·다라국(多羅國)·졸마국(卒麻國)·고차국(古嵯國)·자타국(子他國)·산반하국(散半下國)·걸찬국(乞滄國)·임례국(稔禮國)을 합하여 10국이다.](『일본서기』 흠명기 23년(562)조)

가야제국의 독자성을 유지할 의도로 참여했던 두 차례에 걸친 사비회의는 백제와의 동상이몽으로 실패로 끝났다. 가야제국은 독자적으로 백제와 신라의 가야지역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후기가야의 유력국이었던 아라가야가 548년에 백제를 견제하기 위한 지구책으로 고구려와 밀통(密通)하여 가야제국의 독자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즉 아라가야의 요구에 의해 고구려가 백제와 전쟁을 벌였던 것이다. 하지만 신라가 백제를 구원함으로써 고구려는 패배했다. 따라서 아라가야의 외교적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이를 계기로 아라가야를 비롯한 가야제국은 친백제적인 성향으로 전환되었다.

○ 이 해에 백제의 성왕이 친히 무리를 이끌고 2국[2국은 신라와 임나를 이른다]의 병사를 데리고 고구려를 정벌하여 한성(漢城)의 땅을 얻었다. 또 군대를 나아가게 하여 평양을 토벌하였다. 무릇 6군(郡)의 땅을 얻어 고지(故地)를 회복하였다(『일본서기』 흠명기 12년(551))

○ 백제왕 명농(明農)이 가량(加良)과 함께 와서 관산성(管山城)을 쳤다(『삼국사기』 권제4 신라본기 제4 진흥왕 15년(554) 7월조)

위의 기록은 백제가 벌였던 고구려·신라와의 전쟁에 가야가 백제편에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551년 고구려와의 전쟁에 신라와 임나가 참여했고, 554년의 관산성전투에서 가야[加良]가 백제와 더불어 신라와 전쟁을 벌였던 것이다. 관산성 전투에 참여했던 백제와 가야의 연합군 수가 29,600명이었는데 왜의 원군이 1,000명, 백제의 군사가 1만 명이었으므로 나머지 18,600명은 가야의 군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야가 이와 같이 대규모 군사를 참전시켰다고 한다면 가야가 백제와 신라의 전투에 방관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가야가 국운을 걸고 전투에 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야제국은 백제의 동진(東進)과 신라의 서진(西進)을 극복하고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패하게 되고 이에 고구려와의 밀통(密通)도 실패로 끝남에 따라 친백제화 되었으므로 신라와의 전투가 다시 세력을 복구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전쟁에 많은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패배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에 가야제국은 신라의 가야지역 진출을 막을 수 없었고, 신라에 의해 가야지역이 정복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가야도 관산성전투 이후 신라에 의해 정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라가야가 560년경에 신라에 의해 멸망했으므로 소가야가 아라가야에 인접해 있음을 고려한다면 아라가야와 비슷한 시기에 신라에 복속되었을 것을 추정된다. 고자국의 멸망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560년에 아라가야가 멸망했고, 562년에 대가야가 멸망했으므로 소가야 또한

이와 비슷한 시기에 신라에 의해 정복되었을 것이다. 물론 정복과정을 알 수도 없지만 탁순국이나 김해의 가락국처럼 자진해서 항복했을 가능성도 있다.

고자국은 철자원 등을 바탕으로 한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했다. 그리고 해안지역이 지난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륙을 진출하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포상팔국전쟁이 그것이다. 포상팔국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정치권력은 유지되었다.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구차국, 고차국이 그것인데, 백제의 성왕이 주도했던 사비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백제의 서진(西進)과 신라의 동진(東進)이라는 틈바구니 속에서 가야가 독자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고, 554년 관산성 전투에 가야 제국이 백제의 편에서 전쟁에 참여하였으나, 패배함으로써 가야는 더 이상 신라의 위협을 이겨낼 수 없었다. 이에 아라가야와 대가야가 560년에서 562년 사이에 신라에 의해 몰락했고, 소가야도 정확한 멸망연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에 의해 정복되었을 것이다.

고자국의 멸망연대를 보여주는 기록이 없지는 않다. 『강역고』¹³⁾, 『대동지지(大東地志)』¹⁴⁾나 『역사집략(歷史輯略)』¹⁵⁾ 등의 사서에는 “신라 지증왕 6년(505)에 이사부(異斯夫)가 신라군의 말놀이 연습으로 오인시켜 쉽사리 소가야를 멸망시켰다”는 기사가 있다. 하지만 544년 성왕주도의 제2차 사비회의에 구차국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제 5절 고자국의 문화

제 1항. 의식주문화

고자국권역에서 발굴된 고고자료를 통하여 가야시기의 고자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고자국의 식생활문화는 늑도유적과 동의동패총에서 나온 음식물 재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고자국권역에 해당하는 고성, 곤양, 사천, 남해, 거제 등지의 물산을 통한 추정도 가능하다. 물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토산조를 통하여 알 수 있다.

13) “又按 新羅之史 智證王時 取小伽耶[今固城]”(『疆域考』2 弁辰別考)

14) “一云古自國 新羅智證王六年 遣金異斯夫 取之”(『大東地志』 卷29, 方輿總志1, 三韓諸國 新羅所并諸國 小伽耶國條)

15) “新羅王欲收復高句麗侵地 親定國內州郡 置悉直州 以金異斯夫爲軍主 此軍主爲外官之始也 異斯夫嘗爲邊官 用居道術 以馬戲 誤小伽耶國 取之”(『歷史輯略』 卷3 新羅·高句麗·百濟紀 乙酉 新羅智證王5年 高句麗文咨王14年 百濟武寧王4年 梁武帝天監4年 春2月條)

[표8] 늑도유적과 동외동패총을 통해본 음식물 재료

종류	명 칭
수류	고래, 개, 수달, 강치, 멧돼지, 노루, 사슴, 쥐
조류	기러기·오리과, 독수리과, 꿩, 까마귀과
어류	상어, 송어, 농어, 돔, 솜뱅이
패류	굴, 조개류, 고둥류, 우럭
곡류	쌀, 보리
기타	거북이

(권주현, 「고자국의 역사적 전개와 그 문화」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해안, 2000, 316쪽.)

[표9] 고자국권역의 물산

지역	종 류
곤양군	문어, 대구어, 석굴, 전복, 은구어, 오징어, 전어, 홍어, 낙지, 게, 실미역, 해삼, 짐, 감, 유자석류, 송어, 황어, 차, 벌꿀, 대나무, 농어, 송어, 조기, 담채(淡菜)
남해현	살조개[江瑤柱], 문어, 홍어, 오징어, 전복, 조개, 대구어, 석류, 유자, 석이, 미역, 활대 뽕나무[弓幹桑], 비자(櫃子), 청어, 모래무지, 홍합, 송이, 낙지, 전어, 조기, 송어, 농어, 해삼, 치자
사천현	석류, 유자, 미역, 석이, 모래무지, 전복, 조개, 문어, 황어, 도루묵, 게, 굴조개, 해삼, 벌꿀, 지황, 홍어, 매실, 조기, 송어, 낙지
거제현	옷, 문어, 전복, 조개, 홍어, 청어, 미역, 대구어, 유자, 석류, 표고, 벌꿀, 백화사, 지황, 해삼, 모래무지, 전어, 준치, 조기, 송어, 농어, 낙지, 소금, 치자
고성현	대구어, 전복, 해삼, 굴조개, 청어, 문어, 전어, 홍합, 미역, 대나무, 송이, 석류, 유자, 표고, 감, 황어, 조기, 송어, 농어, 오징어, 낙지, 곤쟁이, 맥문동, 녹용, 다[茶]

고자국 사람들에게 쌀과 보리 등 곡류가 식생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해변에 입지하였기 때문에 바다와 관련된 음식물 재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육지동물도 보인다. 사슴, 노루, 멧돼지 등이 수렵을 통하여 공급되었을 것이며, 개도 사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류도 보이는데 역시 수렵에서 얻어졌다. 꿩은 고대에 애용된 식품 중 하나였다. 이외에도 채소와 과일류도 재배되었을 것이며, 인근 야산을 무대로 한 채집경제가 식생활의 일부를 차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토기를 통하여 음식문화를 알 수도 있다. 고성지역에서 출토된 토기종류에는 고대인이 보편적으로 사용하였던 단지류[호(壺)], 독류[옹

(瓮)], 시루[甗(甗)] 등과 제염토기로 보이는 장란형토기 등이 있다.

고자국의 주거문화 또한 발굴유적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수혈주거지를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다. 동외동·늑도 등 각 지역에서 수혈주거지가 조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야시대 주거지에서 발견되는 수혈가옥 내의 화덕시설은 보온과 취사의 기능을 겸한 다목적용이다. 개별 주거마다 각각의 화덕시설이 있는 것은 개별가족이 취사란 측면에서 자립했음을 의미한다. 사천 늑도의 경우 노지가 대부분 주거지 서쪽에 위치하고 바다는 점토를 깔고 있는 형태이다. 벽면을 따라 판석으로 조립한 온돌시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판석구조와 온돌은 가야지역에서도 상당히 발전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취락의 공간구조도 늑도유적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주거지, 분묘, 패총, 제사구역 등이 분리되어 있다. 동외동유적의 경우에도 구릉 정상부 편평한 곳에 광장과 제사구역이 있으며, 사면 아래쪽에는 주거지가 있고, 그리고 패총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전체 생활구역이 짜임새 있게 구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 2항. 고자국의 의례(儀禮)와 습속(習俗)

의례라고 하는 것은 장송(葬送), 제사, 혼인 등 다양하다. 기록에서도 가야시기의 의례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여 장사를 지내는데, 그것은 죽은 사람이 새처럼 날아다니라는 뜻이다.¹⁶⁾

위 기록은 가야의 전기에 해당하는 변한시기의 장송의례를 엿볼 수 있다. 즉 장사를 지낼 때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즉 “죽은 자가 잘 날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새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로서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간다는 그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신세계는 무덤에 오리모양의 토기가 끼문거리로 부장되어 있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울산 중산리 등 가야의 여러고분에서는 오리모양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가야에는 순장의 풍속도 있다. 고령 지산동고분군, 김해 대성동고분군, 함안·창녕·합천·함양의 대형고분에서 순장의 흔적과 인골이 발견되고 있다. 최근 창녕 송현동 고분에서는 16살 소녀로 추정되는 인골이 조사되기도 했다.

제사의례도 나타나고 있다.

16) “以大鳥羽送死 其意欲使死者飛揚”(『삼국지』 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전 변진)

○ 오월에 씨를 뿌리고 난 뒤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시월에도 농사를 끝낸 후 똑같이 한다. 귀신을 믿는다.¹⁷⁾

○ 국읍에 각각 한 사람을 세우고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했는데 천군이라 한다. 또 각 소국에는 별읍이 있어 소도라 부른다. 방울과 북을 매단 큰 나무를 세워서 귀신을 섬겼다.¹⁸⁾

○ 백제가 사신을 보내 임나집사(任那執事)와 일본부집사(日本府執事)를 불렀으나 제사 때가 되었으므로 제사를 마친 후에 가겠다고 하였다.¹⁹⁾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 것은 봄에 씨를 뿌리고 난 이후나, 농사를 끝난 이후이다. 오월제사는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이고, 시월의 제사는 추수감사제이다. 변한시기부터 귀신에 제사지내는 풍습은 있었다. 그리고 가야는 한해가 시작되는 정초에도 제사를 지냈다. 백제 성왕이 554년 정월 가야의 최고지배층들을 백제의 사비로 불렀지만, 가야의 지배층들은 제사를 핑계로 성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사비회의에 참여했던 가야제국에 구차국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고자국도 정초에 제사지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고자국의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 장송의례와 제사의례를 엿볼 수 있다. 무덤 주변의 주구(周溝)나 호석 주변에 항아리 등의 토기를 파쇄하거나 부장하는 형태, 혹은 석곽이나 석실에 토기나 음식 등을 부장하는 행위 등이 제사의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고성 연당리고분, 고성 울대리고분에서는 호석 주변에 토기를 파쇄한 형태가 보이고 있다. 할석을 석곽처럼 1단 돌리고 그 내부에 토기편만 부장한 형태도 고성 연당리 20-1호 부작곽에서 볼 수 있다. 고자국문화권에 포함되는 늑도유적의 경우에는 뼈가 붙어 있는 고깃덩어리로 시신의 상부를 덮은 흔적도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죽은 자를 위한 음식의 진설(陳設)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읍루(挾婁)사회에서 보이는 ‘죽은 돼지를 곁 안에 넣어 죽은 자의 양식으로 삼게 했다’는 기록으로 알 수 있다.

늑도유적에서는 개를 죽여서 시신의 머리 옆에 함께 부장하는 행위도 발견되었다. 개를

17)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十月農功畢 亦復如之 信鬼神”(『삼국지』 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전 한전)

18) “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縣鈴鼓 事鬼神”(『삼국지』 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전 한전)

19) “百濟國遣使 召任那執事與日本府執事 俱答言 祭神時到 祭了而往”(『일본서기』 권19 흠명기 5년(544) 1월)

함께 부장한 것은 주술적 의미도 있지만, 개는 일찍부터 사육되어온 가축으로서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므로 희생(犧牲)의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즉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 심복을 내세에도 함께 하게 한다거나, 내세를 인도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제사의례도 보여진다. 고성 동외동유적은 1995년에 발굴되었는데 최고 정상부에서 광장이 조사되어 수혈구덩이가 연이어져 있는 것이 나타났는데 제사유구로 추정되고 있다. 수혈구덩이에서는 소형용·소형고배 등의 명기(明器)와 새문양이 잘 새겨진 청동기가 출토되었다. 조문청동기(鳥文靑銅器)에는 44마리의 새가 새겨져 있었는데, 네귀통이마다 원형이 구멍이 뚫려있어 제사장급 지도자의 옷 장식품으로 추정되었다.

생활 속의 습속도 찾을 수 있다. 고고학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늑도유적에서 다량으로 발굴된 복골(卜骨)은 점복(占卜) 습속을 잘 보여주고 있다. 뼈를 살라서 길흉을 점치며 일을 행하거나, 길을 오갈 때 점을 친 것이다. 복골에 의한 점복행위는 대체로 제사, 전쟁, 수렵이나 농업 등 경제생활에 관한 것, 왕 및 왕족의 행위와 안부 등을 물을 때 행한 것이다.

○ 왜와 가까운 지역이므로 남녀가 모두 문신을 하기도 한다.²⁰⁾

문신(文身)이 행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문신은 변한시기부터 행해진 습속으로서 해안지대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어패류를 잡기 위해 잠수할 때, 큰 물고기나 수중동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경남대학교박물관·창원문화재연구소, 『小加耶文化圈 유적 정밀지표조사보고서-선사·고대-』, 1994.

경남대학교박물관, 『고성 연당리고분군』, 1994.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김해 봉황동 409-7번지 유적」, 2003.

고성군·동아대학교박물관, 『문화유적분포지도-고성군-』, 2004.

권주현, 「古自國의 역사적 전개와 그 문화」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해안, 2000.

권주현, 「于勒을 통해 본 대가야의 문화」, 『한국고대사연구』18, 한국고대사연구회, 2000.

권주현, 『가야인의 삶과 문화』, 해안, 2004.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묘제와 출토 유물로 본 소가야』, 2000.

20) “男女近倭 亦文身”(『삼국지』 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전 변진)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가야무덤』 I · II, 2007.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고성 내산리고분군』 III, 2007.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고성 내산리고분군』 II, 2005.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고성 내산리고분군』 1, 2002.
- 국립중앙박물관, 『고성패총』, 1992.
- 국립진주박물관 · 고성군, 『고성 울대리 2호분』, 1990.
- 김동호, 「고성동의동패총」 『上老大島』, 동아대박물관, 1984.
- 김동호, 「고고학상에서 본 소가야 문화의 제문제」 『영남고고학』 1, 1986.
-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 김태식, 「역사적으로 본 소가야의 정치체」 『묘제와 출토 유물로 본 소가야』, 2000.
-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1, 푸른역사, 2002.
-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2, 푸른역사, 2002.
-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 야사』3, 푸른역사, 2002.
- 김태식,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한국 고대 사국 고구려 · 백제 · 신라 · 가야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2008.
- 김태식, 『사국시대의 가야사연구』, 서경문화사, 2014.
- 김태식, 『사국시대의 사국관계사연구』, 서경문화사, 2014.
- 김태식, 『사국시대의 한일관계사연구』, 서경문화사, 2014.
- 나희라,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2003.
- 남재우, 「加耶史에서의 ‘聯盟’ 의 의미」, 『昌原史學』2, 창원대학교사학회, 1995.
- 남재우, 『安羅國史』, 혜안, 2003.
- 남재우, 「加耶聯盟과 大加耶」, 『大加耶의 成長과 發展』, 고령군 · 한국고대사학회, 2004.
- 남재우, 『아라가야역사읽기』, 경남문화, 2007.
- 남재우, 「가락국의 건국신화와 제의」, 『역사와 경계』67, 부산경남사학회, 2008.
- 남재우, 「식민사관에 의한 가야사연구와 그 극복」, 『韓國古代史研究』61, 한국고대사학회, 2011.
- 남재우, 「문헌으로 본 가락국의 형성과 발전」, 『김해 양동고분군과 고대 동아시아』, 주류성, 2012.
- 남재우, 『가야, 그리고 사람들』, 선인, 2011.
- 남재우외, 『가야인의 삶, 그리고 흔적』, 선인, 2011.
- 노중국, 「대가야 문화의 특징」, 『악성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의 문화』,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6.

동아대 박물관, 『고성 송천리 솔섬 석관묘』, 1977.

동아대 박물관, 『고성 송학동고분군』, 2005.

박승규, 「경남 서남부지역 도질토기에 대한 연구-진주식토기와 관련하여-」 『경상사학』 9, 1993.

박승규, 「고고학을 통해 본 소가야」 『고고학을 통해 본 가야』, 한국고고학회, 2000.

백승옥, 「고성 고자국의 형성과 변천」 『한국 고대사회의 지방지배』, 한국고대사연구회 편, 신서원, 1997.

백승옥, 『가야 각국사 연구』, 혜안, 2003.

백승충, 「加羅國과 于勒十二曲」, 『釜大史學』19, 1995.

부산대 박물관, 『늑도주거지』, 1989.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고대사 속의 가야』, 혜안, 2001.

李健茂, 「靑島遺蹟을 통해 본 國際交流」, 『靑島遺蹟을 통해본 韓·中·日 古代文化交流』, 경상남도·경상대학교박물관, 2001.

이동희, 「5세기 후반 백제와 가야의 국경선」,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2008.

李盛周, 「新羅·伽耶社會 分立과 成長에 대한 考古學的 檢討」, 『韓國上古史學報』 13, 한국상고사학회, 1993.

李盛周, 「1~3세기 가야정치체의 성장」, 『韓國古代史論叢』 5, 한국고대사회연구소, 1993.

이성주, 「소가야지역의 고분과 출토유물」 『묘제와 출토 유물로 본 소가야』, 2000.

이영식, 「九干社會와 駕洛國의 성립」, 『伽倻文化』 7, 가야문화연구원, 1994.

이영식, 「가야인의 정신세계」, 『한국고대사 속의 가야』, 혜안, 2001.

이영호, 「우륵12곡을 통해 본 대가야의 정치체제」, 『악성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의 문화』,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6.

이형기, 「소가야연맹체의 성립과 그 추이」 『민족문화논총』 17, 영남대민족문화연구소, 1997.

丁仲煥, 「駕洛國記의 建國神話」, 『伽倻文化』 4, 가야문화연구원, 1991.

주보돈, 「序說-加耶史의 새로운 定立을 위하여」, 『加耶史研究』, 경상북도, 1995.

주보돈, 「우륵의 삶과 가야금」, 『악성 우륵의 생애와 대가야의 문화』,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6.

학연문화사, 『가야의 유적과 유물』, 2003.